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합격자 국내대학 출신은 소수

2012~2016년까지 외교부 선발 최종학력 전체 64명중 국내과는 단 14명

내보아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국회 외교특임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외교부에서 선발한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Junior Professional Officer) 합격자의 최종학력 전체 64명중 86%(55명)가 석·박사 출신이었으며, 이중 학사 및 석사이상 학위를 모두 국내에서 받은 국내과는 단 14명으로 해외에서 학위를 받은 유학파 합

격자가 전체 합격자의 약 78% 50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PO 합격자의 최종학력별 국내의 대학 분포를 살펴보면 학사는 서울소재(5명), 미국(3명), 캐나다(1명)이며, 석·박사는 서울소재(20명), 미국(15명), 영국(9명), 프랑스(5명), 중국(2명), 네덜란드(3명), 코스타리카(1명) 등으로 지난 5년간 전체 64명의 합격자 중 25명이 국내 서울 소재 대학 출신자이며 39명은 해외대학 출신자들로 나타났다.

특히 최종학력 기준 국내 대학 출신 합격자의 지역 분포에서 서울 소재 대학을 제외한 비(非)서울권 대학출신의 JPO 파견자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JPO 선발에 있어 국내 지역불균형 또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5년 간 외교부가 실시한 국제기구진출 관련 설명회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총 15회의 국제기구진출 설명회 중 서울 8회,

부산 3회, 대전·인천·전북·포항 각 1회씩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JPO 최종 선발자는 해당 국제기구에 파견되어 1년간 근무를 마친 뒤 한차례 연장을 통해 최대 2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1996년 시작한 JPO 선발 이래로 파견기간을 마친 인원 125명 중 현재 105명이 해당 국제기구 정규직으로 전환해 84%의 정규직 전환율을 보이는 등 JPO 선발이 향후 대한민국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충남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임금협약 체결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7일 본청 제3회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3.5% 인상 ▲장기근무가산급을 근속수당으로 변경해 금간 3만원, 만년 근속부터 지급, 상한은 21년차 ▲임금 산정시간을 월24시간에서 월209시간으로 변경 ▲평가상여금은 연 60만원 지급(전년대비 10만원 인상) ▲자녀학비 전액 지원(상한액 설정) ▲맞춤형복지 기본 500점(전년대비 100점 인상),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 자녀 당 1회 출산축하복지점수 3000점 지급 등으로,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에 중점을 뒀다. <관련기사 8면>

법원마다 면책인용률 제각각... 법정지 사냥 우려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 훼손

법원마다 면책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큰 차이가 있어 법원결정의 일관성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글대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파산과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5만명이 넘었으며 올 상반기는 2만 2559명이 면책신청하여 그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전체적인 면책 인용률은 90%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의 면책 인용률은 배해 90%를 웃돌았으나 전주지방법원은 2013년과 2014년

은 65%, 2015년 56%, 2016년 51%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지방법원의 경우도 평균인용률이 서울회생법원과 10%이상 차이가 났다.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절차」는 총채무액이 담보부채무인 경우에는 10억원 이하, 무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여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다. 청산형 개인파산절차를 거쳐 면책을 받는 방법과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 후 잔존채무를 면책받는 방법이 있다. 개인파산의 경우 재산상·신분상 불이익이 있으나,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신분상 불이익이 없고 자기 재산에 대한 권리처분권을 그대로 보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글대섭 의원은 "이처럼 각 법원별 면책 인용률의 차이는 보다 쉽고 유리하게 면책 인용을 받고자 인용률이 높은 법원에 면책신청을 하는 법정지 사냥(forum shopping)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3회, 대전·인천·전북·포항 각 1회씩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JPO 최종 선발자는 해당 국제기구에 파견되어 1년간 근무를 마친 뒤 한차례 연장을 통해 최대 2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1996년 시작한 JPO 선발 이래로 파견기간을 마친 인원 125명 중 현재 105명이 해당 국제기구 정규직으로 전환해 84%의 정규직 전환율을 보이는 등 JPO 선발이 향후 대한민국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JPO 파견기간 2년 동안 연도별 1인 평균 지원금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257,234달러(한화 약 2억 8295만원), 2013년 262,292달러(한화 약 2억 8852만원), 2014년 267,151달러(한화 약 2억 9386만원), 2015년 270,141달러(한화 약 2억 9715만원), 2016년 일 년 간(한화 2년차 파견 중) 141,660달러(한화 약 1억 5582만원)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JPO 선발자가 파견된 국제기구의 처우 수준에 맞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지급된 지원금 중 파견기간 동안 3억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은 지원자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일 의원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외교부는 JPO 선발에 있어 균등한 기회배분과 지역인재 선발 및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내에서도 국제적 감각 함양에 따른 활발한 국제무대 진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고 말했다.



내년 정부사업 선제적 대응자세 강조

이 권한대행 "지금부터 준비돼야...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라"

이재관 대전광역시청 권한대행은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중간업무회의에서 내년도 업무추진을 위한 준비를 미리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 권한대행은 "요즘 행정패턴이 빠르게 전개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내년 일은 내년에 한다는 생각을 하면 시간이 그냥 지나가버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권한대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을 집행하려면 사전절차는 지금부터 준비돼야 한다"며 "내년 사업의 추진절차와 관련해 부서 간 협의할 부분까지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부 공모사업에 대응하는 자세에 대해 이 권한대행은 "내달 중 절차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각종 공모사업이 쏟아질 것"이

라며 "이 부분에 대해 기본계획은 물론 구체적 실행계획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날 이 권한대행은 공직자 감 확립을 거듭 강조하며 간부공무원의 승진수범을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은 "각 실국장이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열심히 일 하는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정착시키자"고 말했다.

이어서 김의원은 "JPO의 정의 및 선발 목적이 수습사원으로서 향후 국제기구 사무국 진출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함에 있는 만큼 선발에 있어 청년을 대상으로 이미 갖춰진 경력력의 보다 잠재적 비전 및 기본적인 능력을 판단해 지원자의 가능성을 검증하는 선발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탄소숲 조성으로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

한국중부발전, 산림 이용 CO2 흡수원 양만큼 배출권으로 인정

한국중부발전(사장직무대행 장성익)은 11월 21일 보령 회처리장 부지에 조성한 탄소숲이 국가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등록되었다고 밝혔다. 산림탄소상쇄제도는 산림을 이용하여 CO2를 흡수하고, 이때 흡수된 양만큼 배출권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송학리에 있는 회처리장부지 중 10.5ha에 조성 중인 탄소숲은

소나무 등 7,700그루를 식재하여 30년간 1,054톤의 CO2를 감축하게 된다. 또한, 탄소숲에는 잔디마당, 생태연못, 산책로 등을 구성하여 지역주민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주민친화형으로 설계되었다. 본 사업은 지난 5월에 맺은 충청남도-중부발전간 탄소중립 업무협약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중부발전은 탄소숲을 조성하고,

충청남도와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행정을 지원하는 협업을 통해 성과를 이뤘다. 회처리장 부지를 이용한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은 국내 최초이며, 향후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감축한 CO2는 국가탄소중립행사에 기부할 예정이다. 중부발전은 향후에도 저탄소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온실가스감축 활동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희망당진 2018
나눔 캠페인 및
'이웃돕기' 성금 모금

모금액은 전액 당진시회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됩니다.

행사안내
일 시 2017년 12월 5일(화) 14:00 ~ 15:00
장 소 당진시청 1층 대강당

나눔참여방법
나눔종류 현물 및 현금 모두 가능
참여방법 현장모금 또는 계좌이체
충청남도모금회(당진시, 당진시복지재단 전용계좌)
농협 408-01-087718
입금기간 ~2018.01.31. 까지

2017 올해의 이슈 1위 차 탄핵

<리얼미터> 국민들 선정한 2017년 올해의 이슈 2위 文정부 출범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국민들이 선정한 2017년 올해의 이슈 1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CBS 의뢰로 지난 24일 실시한 '2017 올해의 이슈' 조사결과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응답이 47.6%로 1위, '문재인 정부 출범'이 16.9%로 2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북한 핵실험'(8.7%), '중국의 사드보복'(7.7%), '포항지진/수능연기'(7.3%), '이영학, 인천여아 살인사건 등 잇단 잔혹사건'(4.3%), '살충제 달걀 파동'(3.0%) 등이 뒤를 이었다. '기타'는 2.4%, '잘 모름'은 2.1%.

모든 지역, 연령, 정당 지지층, 이념성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1위로 조사됐고, '문재인 정부 출범'은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2위를 기록한 가운데, 진보

층,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 30대와 40대, 서울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은 20%를 넘었다. 보수층,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 대구·경북에서는 '북한 핵실험'이 '문재인 정부 출범'에 앞선 2위를 기록했고, 50대와 바른정당 지지층에서는 '중국의 사드보복'이,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는 '포항지진/수능연기'가 각각 2위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박 전 대통령 탄핵 61.1%, 北 핵실험 10.7%)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응답이 60%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광주·전라(박 전 대통령 탄핵 51.6%, 文 정부 출범 15.6%), 부산·경남·울산(박 전 대통령 탄핵 49.5%, 文 정부 출범 17.5%), 대전·충청·세종(박 전 대통령 탄핵 46.0%, 文 정부 출범 16.0%), 경기·인천(박 전 대통령 탄핵 45.2%, 文 정부 출범 14.6%),

서울(박 전 대통령 탄핵 42.1%, 文 정부 출범 26.4%) 순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응답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박 전 대통령 탄핵 56.7%, 文 정부 출범 15.1%), 50대(박 전 대통령 탄핵 53.0%, 中 사드보복 11.9%), 40대(박 전 대통령 탄핵 52.1%, 文 정부 출범 20.3%), 30대(박 전 대통령 탄핵 51.0%, 文 정부 출범 26.4%) 순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1위로 선택한 응답이 50%를 넘는 한편, 60세 이상(박 전 대통령 탄핵 30.6%, 文 정부 출범 14.8%), 北 핵실험 14.4%에서는 30% 선으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박 전 대통령 탄핵 53.5%, 文 정부 출범 24.9%)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바른정당 지지층(박 전 대통령 탄핵 53.3%, 中 사드보복 27.9%), 무당층(박 전 대통령 탄핵

48.6%, 北 핵실험 11.8%), 정의당 지지층(박 전 대통령 탄핵 46.1%, 文 정부 출범 24.0%), 자유한국당 지지층(박 전 대통령 탄핵 34.0%, 北 핵실험 21.3%), 국민의당 지지층(박 전 대통령 탄핵 32.3%, 포항지진 23.8%) 순으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박 전 대통령 탄핵 51.1%, 文 정부 출범 27.6%), 중도층(박 전 대통령 탄핵 49.0%, 文 정부 출범 15.7%), 보수층(박 전 대통령 탄핵 39.0%, 北 핵실험 15.3%) 순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2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법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2%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p이다.

김정원기자



제203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배)는 11월 27일부터 12월 21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제203회 제2차 정례회를 연다. 2017년 마지막 회기이기도 한 제2차정례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금융운용계획안 등 중요 안건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 '대전유성구를 지역위원장' 임명

현역 비례대표로서 첫 지역위원장 맡아



국민의당은 27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대전 유성구를 지역위원장으로 현역 국회의원인 신용현<사진> 의원을 임명했다.

신용현 의원은 "대전 유성지역 현안사업과 예산확보는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야구분하지 않고, 오로지 시민을 위해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전지역에서 국민의당 조직을 튼튼히 하고, 민생과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으로 비례대표인 저를 지역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첫 임명 소회를 밝혔다.

또 신의원은 "대전 유성지역 현안사업과 예산확보는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야구분하지 않고, 오로지 시민을 위해

헌신 하겠다"고 지역 활동 포부를 밝혔다. 특히 "대덕연구단지 입주 기업 유성의 특성을 감안하여 과학기술인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그리고 대전 4차산업혁명 특화도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32년 동안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원장까지 오른 물리학 전공의 여성과 학자 출신 국회의원으로 자택은 유성이다. 이정복기자

엄소영 의원 "두정역 북부개발구 사업 가시화돼 환영"

천안시서 할 수 있는 행·재정적 뒷받침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천안시 두정역 북부개발구 설치사업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을 결정함에 따라, 엄소영 의원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엄소영 의원은 "2015년 국토부

에서 두정역을 현장 방문했을 때 박원주 의원과 함께 북부개발구 신설을 위한 천안시민의 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한 바 있으며, 이후로 지속적으로 설치를 위해 관심

을 기울여 왔다"며 "그간의 노력이 이렇게 가시화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엄소영 의원은 "앞으로도 두정역 북부개발구가 원만히 설치될 수 있도록, 천안시에서 할 수 있는 행·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두정역 주변은 아파트 입주와 함께 인근 대학에서 운영하는 등하교 셔틀버스 등으로 혼잡이 극심한 상황으로 이용객 불편을 위해 북부개발구 신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당초 두정역은 하루 평균 4천명 이용객을 감안하여 설치되었지만, 현재 1만7000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최영진기자

"대전과 세종은 상보 호혜적 관계, 시너지 얻을 수 있어"

이상민 의원, 대전·세종 상생협력 증진 위한 토론회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사진)은 27일 "대전과 세종을 중심으로 충북의 오송과 오창, 충남의 논산과 계룡을 잇는 '중부권 벨트'를 연결해 우리나라 첨단과학기술 교육연구산업단지로서 신성장동력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세종특별

자치시청에서 열린 '대전·세종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대전과 세종의 공동발전과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서 이 의원은 "대전과 세종은 경쟁 관계가 아닌, 상보 호혜적 관계"라며 "이미 별개의 도시가 아닌, 하나의 생활권"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카이스트와 대덕연구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대전과 세종이 보유하고 있는 과학

시설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과학 기반 클러스터"의 조성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대전과 세종의 상생 방안으로 ▲대전컨벤션센터, 대전무엇전시관,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등을 활용한 미스(MICE) 산업벨트 조성 ▲영남권과 호남권을 각각 수도권과 이어주는 복합환승 허브 구축을 통한 철도산업 중심지화 ▲복합관광벨트 조성 및 축제 공동 개최 등 문화·예술·체육분야 교류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정복기자

충남도의회 빅데이터 연구모임, 최종 보고회 개최

충남미래연구포럼 겸해 연구활동 최종보고회



충남도의회 모바일 빅데이터와 지역자료 연계를 통한 공공정책 발굴 연구모임은 27일 충남연구원서 충남미래연구포럼을 겸해 연구활동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공휘 의원(천안8)이 대표를 맡은 이 연구모임은 지난 3월 창립총회를 열고 해외 및 우수 민간

기업에서 활용하는 빅데이터 활용기법을 행정기관에 접목하는 방안을 연구해왔다.

실제 보령머드축제부터 백제문화제 등 축제 현장을 찾아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 부분별하게 측정되는 관광·관광객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충남경찰청 빅데이터를 범죄 예방과 검거율을

높이는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천안·아산상권 분석사례, 주요 축제 방문객 분석 등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대표는 "매년 관례적으로 증액되는 예산을 보며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연구활동을 실시하였다"며 "도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행정업무 혁신에 우수한 성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김영 의원은 "빅데이터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흐름을 짚어내는데 빅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이다"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도록 의정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논산=김대선기자

1회 가격으로 최대한 값이 거래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9 대동빌딩 2층

김종천 운영위원장 '대전·세종 상생발전방안 토론회' 참석

각각 도시 경쟁력 끌어올려야 함 강조



대전시의회 김종천 운영위원장(서구 제5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대전·세종 상생발전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종천 위원장은 대전과 세종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인근 자치단체가 아닌 수도권 인구가 분산돼야 본래의 균형발전 기능을 실현할 수 있는 만큼, 세종시는 국회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대전시는 엑스포 재창조사업, 도안 호수공원 조성, 유성관광특구 대형 스키리조트

트 건설 등으로 각각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당장 실익이 있는지 '순익 계산'을 따지기보다 '과학수도 대전', '행정수도 세종'의 미래 비전 수립으로 경제 행정을 넘어선 광역 행정으로 상생 발전해 제2수도로서 기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데 지역 역량을 집중하여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등 상생발전 협력을 통한 거시적 공동 이익의 확대에 주력하여야 할 것임을 피력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의원의 한시킴으로 의회차원에서 오늘 토론의 내용이 실현되도록 대전과 세종의 상생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원기자

충남도의회 농경환위,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 위탁 운영 제동

'충남도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부동의

충남도의회가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 위탁 운영에 제동을 걸었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27일 열린 제300회 정례회 상임위회에서 도가 제출한 '충남도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부동의했다고 밝혔다.

농경환위가 해당 동의안을 부동의한 이유는 많은 예산을 투입한 대비 그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된 탓이다.

강용일 위원장(부여2)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법률상당,

교육, 관리규제 등을 지원해주는 내용이나,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 꼭 민간위탁만이 방법은 아니다"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 오히려 내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선 위원(당진1)은 "도에서 직접운영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위탁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라며 "법률적으로 민간한 사항이 있다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은 "현재 고용노동부 고용복지센터 5개소와 3개 시군에서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업무가 중복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민약에 추진한다고 하면 위탁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관에서 관련 부서를 신설하여 직접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 및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라고 얘기했다."

김용규 위원(아산2)은 "비정규직 문제는 기업의 기업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며 "민간부문은 이윤 추구와도 맞물린 만큼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복기자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안전·권리보장 촉구"

대민주 대전 대학생위원회, 성명서 발표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학생위원회는 27일 최근 제주도 특성화고 한 학생이 제주도 한 음료제조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중 적재용 컨베이어벨트 사고로 사망한 것과 관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학생위원회는 이날 성명서

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는 이번만이 아니다. 전 북에서 모두가 기피하는 폴센터에 배치 받고 괴로워하다 세상을 떠난 홍 양, 구의역에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김 군 모두 현장실습이라는 명목 하에 일어난 사망"이라며 "현장실습생들은 현장실습이라는 미명하에 온갖 노동착취를 당하는 우리사회의 '얼굴'이다."

이정복기자

교육부 “고교학점제 2022년 전면 도입... 내년 시범운영”

학점 기준으로 학사 제도 설계

고등학생들도 앞으로 자신의 희망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받는 방식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7일 '고교학점제 추진

진방향·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22년 도입을 목표로 중장기적 준비와 검토,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학점

제 도입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방안'을 연구하는 정책연구학교인반계고·직업계고각 30개교를 3년간 운영한다. 고교학점제는입시를 전제로하

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로 학점을 기준으로 학사 제도가 설계된다.

영역·단계별 선택이 가능한 학점 기반 교육과정으로 수강신청을 통해 배운 과목을 스스로 선택한다. 사회·교양·예체능 분야는 필요한 과목을 추가 개설할 수 있고 수학·과학 등은 난이도와 학습량에 따른 수준별 수업 편성도 가능하다.

수업은 학년 구분없이 들을 수 있고 토론·심층 중심으로 운영된다. 평가는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를 적용해 과정 중심으로 이뤄지며 중장기적으로는 대학의 F학점과 비슷한 개념의 이수·미이수 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고교학점제는 2021년까지 2차에 걸친 연구·선도학교 운영, 정책연구·종합 추진계획 마련, 현장 의견수렴 및 제도 도입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정책연구학교는 일반계고와 직업계고각 30개교, 선도학교는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참여 학교 중 40개교가 올해 안에 지정된다.

일반 학교에서도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해 학점제를 준비하도록 지원사업이 강화된다. 학생의 교과 선택권 확대를 위해 시·도 교육청이 운영 중인 공동교육과정의 성취 산출 방식을 내년부터는 수간 인원과 관계없이 석차등급을 내지 않도록 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 준비와 관련해 정책연구, 제도 개선, 현장 의견수렴 등 준비사항을 총괄 관리하고 정책연구를 통해 졸업·입수를 기준으로 한 현황 졸업 기준을 학점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 등 학점제 시행에 따른 졸업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학점제 전면 도입 시 필요한 교원·시설 등 인프라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 모델도 개발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 체제 개편, 교육과정과 수업·평가 혁신, 대입제도 개선 등과의 연계를 통해 학점제 도입을 준비하겠다"며 "학점제 도입으로 학생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교사는 수업과 평가에서 자율성, 전문성을 발휘해 교육과정이 다양해지면서 고교교육 혁신이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서 기자

아산 배방역 주변 상습 정체 '심각'

모산네거리 극심한 교통체증의 주원인... 입체 교차로 개선 시급

충남 아산시의 천안시를 연결하는 국도21호선 상습 교통정체 구간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방역 주변 모산네거리가 극심한 교통체증의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입체 교차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김용규 의원(아산2)은 24일 열린 제30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청 및 교육행정 서면질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따르면 2011년 12월 국도 21호선의 아산-천안 구간 7km 연장으로 교통정체 해소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유일하게 배방역 주변 모산네거리의 경우 평면 교차로로 인해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다.

김 의원은 "배방역 모산네거리 주변 인구는 6만7000여명이지만 2015년 당청 디스플레이시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인 한내로가 준공되면서 교통정체는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방 공수 및 월천 도시개발사업, 개별 공동주택 사업 등 급속한 개발이 진행 중인 여건을 고려, 입체교차로 개선이 시급하

다"며 "도 차원의 관심과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장기미집행 중인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도 "충남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46.3km² 중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이 39.3km²(면적 85%)가 실효대상"이라며 "조성 사업비는 약 6조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산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로는 417개소에 178만 7000m²에 이른다"며 "20년 이상 미집행에 의해 효력이 사라지는 만큼, 사유재산권 침해 등 혼란을 막을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복 기자

시민이 행복한 역점사업·주요시책 마무리

북기왕 아산시 시장 2018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

북기왕 아산시장이 24일, 열린 제199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아산' 건설을 위한 2018년도 시정운영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밝혔다.

시가 이날 제시한 2018년도 중점 추진방향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증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미래 인프라 확충과 신성장동력 발굴 ▲다함께 잘사는 행복과 정의로운 시민성장 ▲각종 도시개발과 문화·관광·생활 인프라 확충 ▲사회통합적 도시재생으로 원도심 활성화 ▲아동·여성·청년에 대한 투자·지원 확대 ▲지역 전반에 미치는 고른 성장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산업·경제 분야는 KIX역세권 업무·연구거점화 추진, 기업유치와 투자를 촉진할 인주일반(3공구), 아산디지털일반, 아산스마트밸리일반, 탕정일반 산업단지 등의 차질 없는 추진, 청년 및 여성 일자리 확대와 투자·지원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경제적 활성화' 등이다.

교육·복지·안전 분야에서는 교육경쟁력 강화 및 교육환경 개선 지속 추진, '아산시민학교, 아산행복교육지구, 아동·청소년 마음행복지원사업' 등을 통한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교육도시 조성', '우후에 머물지 않는 국제안전도시의 체계화', '시민 인권 감수성 확산 및 노동자 권익증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환경과 도시개발 분야는 신재

생에너지 활성화와 친환경에너지 단지 조성, '전체적으로 도입한 패시브 건축기법의 보급 확대', '시민과 함께하는 실개천살리기, 자연복합 아산' 건설을 위한 2018년 도시개발사업과 성매매 우려지역(속칭 장미마을) 기능전환' 등을 주요 시책으로 밝혔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4대 체전 성공 개최의 경험을 토대로 '2018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성공적인 개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한 연고지 이전으로 활성화된 '프로구단우리은행 위비 여자농구단, 무궁화축구단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유소년 스포츠 저변 확대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마중교통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당첨형 신설', '신도시 해제지역 연계교통망 동시 추진' '국도도 70호 선상-염치', '국도21호 장준교차로 개량'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행정 분야에서는 '시민 우선의 행정', '소외와 시각 없는 행정'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2018년은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새 정부 패러다임이 가시화 되는 중요한 해로 인식하고 있다. 특별히 중앙정부 단계, 도는 도담계, 시는 시담계' 기능과 권한을 바로 잡는 일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그 일에 시의회는 물론 시민

모두의 힘을 모아주실 것을 특별히 요청하였다.

북 시장은 "이러한 시정방향에 맞춰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9,713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118억 원이 증가한 규모"라며,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은 지속적인 인구증가 및 도시성장, 전반적인 경기회복세 요인으로 당초 보다 1,014억 원이 증가한 8,427억 원,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104억 원이 증가한 1,286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세출예산은 민선 7기 시장이 주도하고자 하는 사업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계속사업에 대한 연속성과 안정성,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에 대한 적시성 등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 지역 균형발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북기왕 시장은 "2018년은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며 "동시에 민선 7기가 잘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고민과 배려가 필요한 해로써, 그동안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현 재보다는 미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새로운 도전을 선택하고 기회를 결과로 만들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할 때"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시민이 행복한 아산을 만들어가는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시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 기자

한밭대 늦깎이 동문들 세무사 합격 '눈길'

김영미·경지민 씨 등 졸업생 2명 세무사시험 최종 합격



한밭대학교(총장 송하영)는 경영회계학과 졸업생 김영미 씨(좌·2015년 2월 졸업)와 경지민 씨(우·2017년 2월 졸업) 등 2명이 제54회 세무사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남들보다 다소 늦은 나이에 한밭대에 입학해 학업을 시작했으나 지난 15일 발표된 제54회 세무사 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에 나란히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김영미 씨는 45세이던 지난 2011년 한밭대 회계학과(現 경영회계학과) 주간과정 신입생으로 입학해 자녀될 되는 동기들과 공부하는 뜨거운 학화열을

보여왔으며, 졸업 후에도 학업을 계속해 올해 51세의 나이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는 영예를 안았다.

경지민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다가 동년배에 비해 4-5년 늦게 한밭대 경영회계학과에 입학했다. 재학 중 만점에 가까운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지민 씨는 졸업 후에도 세무회계 전문가를 목표로 한밭대 경상대학에서 지원하는 고시원인 '한현재'에서 공부를 계속해 왔다.

김영미 씨는 "입학동기들이 우리 아들과 같은 나이였지만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다. 그동안 아끼없는 의조를 해준 남편과 경영회계학과 교수님, 선·후배들의 도움이 컸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 "훌륭한 세무사가 돼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한밭인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경지민 씨도 "한밭대에서 전공수업을 통해 공부했던 내용들과 한현재에서의 수험생활이 세무사 시험 준비에 큰 도움이 됐다"며 "교수님들의 지도에 감사하며 앞으로 전문가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한밭대는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를 꾸준히 배출하고 있으며, 경상대학에서 운영 중인 고시원 '한현재'를 중심으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이번 김영미·경지민 씨 등 2명의 세무사 시험 합격자를 비롯해 9월에는 경영회계학과 졸업생 박현우 씨가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다.

또한 2016년 공인회계사 1명과 세무사 2명, 2014년도도 세무사 1명을 배출하는 등 한밭대는 회계·세무 분야에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요람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정복 기자



충남천안수퍼(좌) 지역복지시설에 1000만원 상당 물품기부

충남천안수퍼마켓 동조합은 연말을 맞아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중소기업의 사랑을 실천을 위해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천안시청에 전달했다. 이번 후원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퍼마켓들이 참가해 지역 복지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천안시민들에게 받은 고마움을 지역 복지시설에 '나눔'으로써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변인석 이사장은 "대형쇼핑몰로 인해 지역 수퍼마켓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시민들이 가까운 수퍼마켓을 찾아주고 있어 힘이 난다"며, "향후에도 중소기업으로 사회적 책임 실천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주도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천안수퍼마켓 동조합은 연말을 맞아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중소기업의 사랑을 실천을 위해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천안시청에 전달했다. 이번 후원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퍼마켓들이 참가해 지역 복지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천안시민들에게 받은 고마움을 지역 복지시설에 '나눔'으로써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변인석 이사장은 "대형쇼핑몰로 인해 지역 수퍼마켓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시민들이 가까운 수퍼마켓을 찾아주고 있어 힘이 난다"며, "향후에도 중소기업으로 사회적 책임 실천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주도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LIVE 살아있는 천안시의회
제207회 제2차 정례회
 회 기: 2017. 11. 29(수) ~ 12. 18(월) / 20일간

◆ 주요안건 ◆
 - 2018년도 예산안
 - 2017년도 정례회결산
 - 조례안 및 기타결안 심사 등

◆ 의회방정안내 ◆
 - 거 간: 회기 중
 - 장 소: 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 신 형: 의회사무국(521-25300)

천안시의회
 www.chaean.go.kr

● 동 정 ●●●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박용갑 중구청장은 28일 오후 4시 '은행선화동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참석.

열린혁신 특강



장종태 서구청장은 28일 오전 10시 30분 구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국정운영 방향 및 열린혁신 특강'에 참석.

제 225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28일 오전 11시 유성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 225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

1일 명예점장 현장체험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28일 오전 대전행복나눔푸드마켓 3호점점장소에서 열리는 푸드마켓 3호점 1일 명예점장 현장체험에 참석.

市 마미미술프로젝트 추진

대전광역시 추진 중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마미미술프로젝트 사업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는 동구 대전역 인근 역전길, 역전시장길, 창조길 등 10만㎡에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과 함께 공공미술을 접목한 생활문화 예술마을 조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3년간 진행된다.

현재는 마을에 작가들이 7개소 9종류의 공방을 운영 중으로, 건축주와 3년 무상임대 계약으로 공간을 확보해 주민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 까지 역전길에서 '보물섬'을 주제로 1차 전시회를 마쳤으며, 창조길에서 11월 15일부터 28일까지 2차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영호 기자

市, 심천하이테크페어서 기대 이상 성과

“해외시장 판로개척 전력 다할 것”

대전광역시시는 지난 11월 16일부터 21일까지 중국에서 개최된 '2017 심천하이테크페어'에 참가해 275건 4억7천만 달러(5,170억 원)의 수출상담과 8건 4억1천8백만 달러(4,598억 원)의 MOU 체결, 5만 달러(5,500만 원)의 현장 판매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한국, 중국, 미국, EU 등 50여 개국 3,000여 개사가 참가하였으며, 한국에서는 지난 달 31일 발표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협의의 결과' 이후 개선된 분위기를 반영해 대전, 전북, 강원 등에서 170여개 기업이 참가했다.

대전시는 대전테크노파크와

함께 첨단 기술과 우수 제품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 12개사를 선정해 전시부스 설치, 사전 시장조사, 해외바이어 상담주선, 통역 등을 지원한 결과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주제이엔디(대표이사:정철호)는 이란 테헤란 Center for Innovation and Technobg社와 4억 달러(4,400억 원) 규모의 MOU를, 중국 심천 Eulent Optronics社와 1백만 달러(11억 원) 규모의 MOU를 체결했다.

(주제이엔디는 향후 테헤란 전역 무선주차유도시스템 설치를 위한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천연치약 전문기업인 셀

포원(대표이사:정원태)는 중국 내 다양한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확보하고 소비재를 폭넓게 취급하는 상회회사인 Jun Ma Rui社 등 3개사와 총 1천만 달러(110억 원) 가량의 MOU를 체결하고, 이후 5년간 중국 특점 총판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 밖에 쉰마디(대표이사:장길남)는 Zhong Jian社와 가스흡착제 공급을 위한 500만 달러(55억 원) 규모의 MOU를, Jin Yang社와 생산설비 건설을 위한 200만 달러(22억 원) 규모의 MOU를 체결하였다. Zhong Jian社는 한국에서 추가 협상을 통해 공기필터 제작 관련 기술 제휴에 대한 계약이 이

루어질 전망이다.

대전시 김정홍 4차산업혁명영과장은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 최대 첨단산업 박람회에서 대전 기업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앞으로 수출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과 맞춤형 지원으로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박람회에는 한밭대학교 경영회계학과와 중국어과, 한남대학교 린튼글로벌비즈니스스쿨에서 선발된 21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기업 홍보와 바이어 상담 지원 등의 역할을 했다. 이영호 기자

중구·공무원노동조합, 전통시장 살리기 앞장

조합원에 온누리상품권 전달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과 중구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재천은 조합 창립 11주년을 기념해 1,8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 조합원 750여 명에게 전달했다.

노조는 그동안 지급해 오던 기념품을 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해 김장철을 맞이해 김장재료를 전 통시장에서 구입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재천 위원장은 "지속적인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통시장 살리기에 앞장서는 한편 전국단위 노동조합회의도 우리 지역 개최를 추진해 원도심상권 살리기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용갑 청장은 "지역상권과 함께 하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견지한 중구공무원노동조합에 박수를 보낸다"며 "노·사·상인이 함께하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서구, 청년 문화콘텐츠 융합 기획단 발대식

새로운 콘텐츠 개발 본격적 활동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지난 25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청년예술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문화콘텐츠 융합 기획단'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기획단'은 지역 내 청년 문화예술인들과 단체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을 융합해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창단됐으며, 11명의 운영진과 34개 공연팀으로 구성됐고 참여 청년 수는 모두

134명이다. 또한, 구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청년지원 기본조례를 제정했고, 올해는 청년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다양한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서구 청년에 트워크를 구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을 융합해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창단됐으며, 11명의 운영진과 34개 공연팀으로 구성됐고 참여 청년 수는 모두

박봉관 기자

市 크리스마스 쉼 증정식

대전광역시시는 27일 시청 1층 접견실에서 대한결핵협회 대전·충남·세종 지부와 '크리스마스 쉼' 증정식을 갖고 성금을 전달했다.

대한결핵협회는 매년 결핵퇴치를 위해 결핵의 심각성을 알리고 결핵에 대한 인식개선 등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크리스마스 쉼을 발행하고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대전시에서도 크리스마스 쉼 증정식을 시작으로 전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쉼 모금 운동에 나설 계획이며, 조성된 모금액은 결핵 퇴치 예방 및 홍보, 조사 연구, 환자 조기 발견 등을 위한 검진사업에 전액 사용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결핵 발생률이 OECD가입국 중 1위로 지난해 대전시 결핵환자는 844명(인구 10만 명 당 56.1명), 결핵 신환자는 677명(인구 10만 명 당 45.0명)이었으며, 44%는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후진국병으로 인식되는 결핵이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만큼,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결핵을 조기 퇴치할 수 있도록 많은 직원들과 시민들이 성금 모금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크리스마스 쉼 증정식에 앞서 지난 16일 대한결핵협회 대전·충남·세종 지부와 함께 대전역 인근 노숙인과 쪽방거주자들 200여명을 대상으로 '결핵 없는 건강한 세상'을 주제로 결핵 교육 및 무료 결핵 검진을 실시했다.

이영호 기자

암 치료 전문 '소망통합암·면역센터' 본격 운영

통합적인 접근으로 환자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

대전 송도외과(원장 유정준, 유중재)가 지난 9월 3일 소망통합암·면역센터(센터장 이정은)를 개원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원치 않는 암 발생으로 힘들어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통합적인 암 면역치료를 최상의 환경에서 제공해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기 위해 설립했다.

소망통합암·면역센터는 5가지 통합 암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암 예방부터, 암 수술 직후 관리, 재발 및 전이 방지, 암 치료

효과 향상, 말기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 등 환자마다 다른 치료 상태에 따라 최적화된 암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모든 암 치료 프로그램에 면역력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에 따른 부작용을 경감시킬 뿐 아니라 암을 극복하고 재발을 방지할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 때문이다.

면역 향진을 위한 주사치료(미슬도주사, 자막신주사, 고용량 비

타민씨 미네랄주사, 이문셀 등 자기면역세포치료)와 암세포를 죽이는 고주파온열치료(온코써미)를 실시하고 있으며, 스트레스를 없애고 체내 신진대사와 면역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웃음치료, 면역식단 등을 운영 중이다.

소망통합암면역센터 관계자는 "암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의사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한다"며, "대전에서 가장 신뢰받는 암 치료 전문 병원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송병배 기자

유성구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 보고대회



대전 유성구는 2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을 공유를 위한 '유성구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사)유성구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열려 지난 3월 '유성구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18개 팀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결과를 발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로, 재능기부 색소폰 공연과 우수팀 시상식도 진행됐다.

또한, '대전정소년지식공유모임'(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 테이크아웃컵 OUT), '씨오쟁이

봉사단'(따뜻한 마음을 담은 애착인형 만들기), '장의발명나눔미봉사단'(애들이, 발명 어렵지 않아요!), '청소년자원봉사동아리 올림'(찾아가는 교육기부 올림), '학의 뜰 나비 아파트 봉사단'(주민소통을 위한 학의 뜰나비 장터) 등 5개 팀이 최우수팀으로 선정됐다.

특히, '2017 유성구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18개 팀(1,089명)이 문화봉사, 교육기부, 환경보호, 나눔장터, 복지서비스 제공, 벽화그리기 등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진행돼 왔다.

신찬균 유성구자원봉사센터장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자원봉사 활동들의 잡힌 점을 적극 공유해 앞으로 민간주도형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봉관 기자

enfiren advertisement with image of people running and a tire. Text: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가장 '리얼'스럽게 달리는 기술' and 'enfiren 알뜨랄 효과란?'

천안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대폭 확충

올해 말까지 72개소를 추가 설치해 유개승강장 설치율을 약 40%로 높일 예정

천안시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비가림 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도비 4억을 포함한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현재 유개승강장 35개소를 설치했고, 연말까지 72개소를 추가 설치 완료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비오는 날이나 추운 겨울에 무개승강장에서 기다리던 시민의 어려움을 인지한 시는 도·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시내버스 이용자들의 편의증진과 안전을 위해 유개승강장 신설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천안시내버스 정류소는 총 2,035곳으로 그 중 유개승강장은 734곳 설치율이 36%이며, 72개소 추가 설치 완료 시 유개승강장 설치율은 약 40%에 다



르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도 시는 지속적인 설치 요청지와 읍면동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며, 주요 환승지역(미중버스)과 이용객이 많은 정류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추진 중인 유개승강장 민간투자사업 등을 활용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유개승강장을 추가 확충할 방침이다.

김남걸 교통과장은 "지속적인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의 확충과 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채기영기자

새콤달콤 당진 해나루 딸기 '출하'

고당도에 뛰어난 맛과 품질 일품

전국 최고 수준의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당진 해나루딸기가 이달 중순부터 출하를 시작했다.

당진 해나루딸기는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최고품질 사과체 평가에서 지난 2015년 최우수단지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맛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12브릭스 이상의 고당도를 자랑하는 해나루딸기는 중량이 23~30g, 착색은 90% 이상의 품질을 자랑하며, 당진지역 소비자들로부터 겨울철 비타민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영인면 김치로 따뜻한 정 나눠

아산시 영인면은 지난 24일, 수자원공사 아산권관리단으로부터 김치 10kg 40박스를 기탁 받아 저소득 노인들에게 배

달해 주었다. 해마다 수자원공사 아산권 관리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가정에 김치를 기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거동 불편으로 김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김치를 후원품으로 나누어 주는 운영 넘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정희 면장은 "영인면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해마다 잊지 않고 온정을 나눠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영인면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이 있는 지 살펴며 도움을 주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달식에 참여한 이영구 신현리 이장은 "생활이 어렵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 을 위해 기탁해주시 김치를 잘 전달해드리고, 신현리 마을 주민과 영인면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실내체육시설 전면 금연구역 확대 지정

당구장·스크린골프연습장 등 103곳

논산시(시장 황병성)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2월 3일부터 관내 실내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국민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금연구역 확대 지정 대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103곳으로 당구장 46개소(45%), 체육도장 21개소(17%), 스크린골프연습장 18개소(17%), 헬스장, 무도장 등이 해당된다.

금연구역 확대지정에 대한 계도기간은 2017년 12월 3일부터 2018년 3월 2일까지이며 계도기간에는 체육시설 내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연구역 지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은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보건소는 실내체육시설을 직접 방문해 과태료 부과 기준, 준수사항 등 사전안내와 금연구역 지정 홍보 포스터를 배부·부착 하는 등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도시지원과 건강정책팀(041-746-8052)로 문의하면 된다.

논산=김태선기자

서산생강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마늘·한우 등에 이어 7번째...역사성·유명성·향토성·품질·입증



서산시는 서산생강이 특허청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최종 등록됐다고 27일 밝혔다.

특허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등록 확정된 서산생강은 지난 2015년 9월 출원

후 무려 2년 2개월만이다. 서산생강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은 2009년부터 마늘을 시작으로 달래, 생강한과, 어리굴젓, 감자, 한우에 이어 7번째다

서산=김정환기자

청양군 2018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접수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농촌경관 개선과 농촌 인구 유출을 줄이기 위해 2018년도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농촌주택 개량, 농촌빈집정비, 주거용 건물 슬레이트지붕 교체 철거 지원사업 희망자를 오는 12월 31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 받는다.

군은 노후·불량한 농촌주택 정비(철거) 및 신규주택 건축수요에 대응하고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촉진하고자 내년에는 ▲농촌주택개량(신축) 70호 ▲주거용 빈집정비 60호 ▲주거용 건물 슬레이트지붕 교체 철거 지원 60호의 물량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주택개량 지원(신축용)은 1호당 토지·주택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 및

사업실적확인에 따라 대출가능 한도 내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택의 공공 우회권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농촌 빈집정비는 농촌지역의 이농현상으로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1호당 철거비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용건물 슬레이트지붕 교체 지원은 1호당(신정인 당) 최대 168㎡(336㎡)의 철거 및 처리가 지원될 계획이며, 이는 위탁사업(공기업) 사업자 선정으로 시행되므로 신청자에게 직접적인 현금지원은 되지 않는다.

또한 빈집정비와 주거용건물 슬레이트지붕 교체 철거는 중복 신청할 수 있다. 군은 내년부터 각각의 사업대상자 선

정 시 착수일이 빠른 순서로 우선 선발해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으로 조기 추진을 위해 올해 안에 수요량을 파악하고 내년 1월 중 현지조사 완료, 2월 중에는 대상자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건설도시과 김중섭 과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촌 경관개선과 농촌 인구 유출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슬레이트 지붕 교체 철거는 주민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앞으로 더욱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문의 사항은 청양군 건설도시과 주택팀(040-2822)으로 하면 된다.

청양=정성범 기자

서산·당진·청주 야생조류 분변서 H5형, H7형 AI 바이러스 검출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차단방역 조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충남 서산(삼흥저수지)·충북 청주(무심천), 23일 충남 당진(석문간척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해 환경부 환경과학원 중간검사결과 H5형과 H7형 AI 바이

러스가 25일 검출되어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취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지역에 대해 '야생조류류 예방지역'으로 설정해

21일 동안 해당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해 이동통제와 소독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아울러,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와 해당 지자체는 방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해 매일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했다.

21일 동안 해당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해 이동통제와 소독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아울러,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와 해당 지자체는 방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해 매일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했다.

서천군 2017년산 공공비축미 매입대금 중간정산 지급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2017년산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매입대금의 일부를 이달 중에 정산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간정산액은 3만 원으로, 최종 정산은 내년 1월 중 전국 평균 쌀값 발표 이후 실시 될 예정이다. 서천군의 올해 매입물량은 지난해보다 13% 증가한 총 9,095톤으로 그중 산물비는 1,935톤으로 RPC에서 지난 16일

로 인해 조속한 매입대금 지급을 원하는 현장요구를 받아들여 중간정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비축미는 수분함량 기준(13~15%)을 잘 유지하고 매입품질 및 매입기준을 잘 지켜야 매입이 가능하다.

공공비축미 매입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농림과(041-950-4375)나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아산시 돼지 구제역 항체형성률 정기점검 실시

아산시 축수산과(과장 김만테)는 오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충남동물위생시험소 아산지소에서 시행하는 돼지 구제역 백신항체 모니터링 검사에 이어 양돈농가의 백신접종 여부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축수산과는 양돈전문 공수의사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모니터링 검사에서 항체형성률이 기준치 미만(반식분 60%, 비육돈 30% 이하) 확인된 농가에 재접종

명령, 접종 지도 및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농가의 구제역 방역의식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김만테 과장은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소규모 양돈 농가에 대한 집중점검을 연중 상시로 실시할 계획"임을 밝히며,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책임방역의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아산=리량주기자



홍성군 친환경 기능성 '계란' 생산

홍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가 2015년부터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해 클로렐라 농법을 유기농 작물 재배 농가에 시범적으로 보급해 왔다.

올해는 농촌진흥청 『새 기술 실증시험 연구 활동 지원 사업』을 받아 산란계에 클로렐라를 응용수 급여 및 보조 사료에 이용, 계란의 품질향상 및 기능성 클로렐라 계란을 생산하기 위해 현장 실증시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클로렐라는 고단백식품으로 필수 아미노산,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 등의 영양성분이 골고루 함유된 우수한 영양학적 가치를 갖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유해물질 배출, 항산화 작용, 피부건강, 면역증진 및 조혈, 혈압개선 등 다양한 연구가 보고되어 있다.

또한 대량 배양이 쉽고 배양 단가도 1톤에 20만원 미만으로 저렴한 편이며 클로렐라 배양액을 이용한 치어 배양 및 딸기

저장성 향상과 풍나물 수량성 증가 등이 이미 실증되었으나 산란계에서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클로렐라 배양액을 산란계에 2주 이상 급여한 결과, 감출 함량이 47mg(무처리 계란) → 51.42mg(클로렐라 처리 계란)으로 증가하였으며, 할레스테롤은 334mg(무처리) → 257mg(처리)으로 감소했다.

또한 홍성사랑 국화축제에서 기능성 클로렐라 구운 계란 시식회 및 소비자 기호도를 조사한 결과 무처리 계란에 비해 클로렐라 계란의 노른자는 더 촉촉하고 흰자는 쫄쫄하며 비린내가 덜 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통해 홍성군에서는 이미 클로렐라 농법으로 생산한 농산물에 사용하는 '클레온', '클로링'이라는 브랜드와 더불어 기능성 클로렐라 계란에는 '클로렐라'라는 브랜드를 통칭할 예정이다.

홍성=김정환기자

공주밤마실야시장 15만명 다녀가

2017 공주밤마실야시장 일정 종료... 타지역과 차별화된 호응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개장해 공주의 야간 명소로 자리매김하며 15만명이 넘는 시민과 관광객이 다녀간 공주밤마실야시장이 지난 18일을 끝으로 올해 일정을 종료했다.

공주밤마실야시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증가하는 관광객 수요에 부응한 야간관광명소 사업의 일환으로 백제시대의 전통 저잣거리 콘셉트로 해 초가 지붕 판매대, 원두막, 백제복장과 보름달 모형의 조명 설치 등 타지역의 야시장과 차별을 뒀다.

특히, 공주의 특산물인 밤을 활용한 군밤, 밤 컵케이크, 밤샌드위치, 알밤이채순대, 밤탕수육 등을

비롯해 큐브스테이크, 소고기불초밥, 버블호떡, 녹두빈대떡 등 다양한 야식들이 시민과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총 58회 걸친 야시장 운영 기간 15만명의 방문객이 야시장을 다녀갔다.

또한, 지역의 아마추어 음악·공연 동아리팀과 전문 공연팀이 다수 참여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문화재 야행,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마당, 팔도관광열차 등과 병행해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야시장 기간에는 SNS와 입소문, 언론보도와 방송 프로그램 등을 통해 큰 인기를 끌어 타 지자체와 상인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지로 급부상하기도 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아산시, 제6기 도시재생대학 수료식

도시재생대학 수강생 등 300여명 참석



아산시는 지난 25일,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도시재생대학 수강생 등 300여명이 참석한 제6기 도시재생대학 수료식을 가졌다.

아산시가 주최하고 (사)충남도 시간축연 구원에서 주관해 주민리더 및 지역활동가를 양성하고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지역 대학교수 및 전문가를 지도교수로 편성해 6주(10.21.~11.25.)에 걸쳐 매주 운영했다.

이번 6기는 운영2동, 운영6동, 도고면 활성화팀 등 3개팀으로 구성 운영했다.

운영2동 활성화팀은 운영2동의 도시재생 자원 탐색 및 발굴에 주요안점을 뒀고 동네 담사를 통해

재생 가능한 주요 활성화방안의 방향을 논의했다.

운영6동 활성화팀은 운영6동을 알리고 활성화 시키고자 관내 주요 문화재를 활용해 지도와 이야기가 담긴 달력을 제작했고, 도고면 활성화팀은 도고온천을 찾는 방문객을 위해 먹거리, 온천시설, 숙박시설 등을 편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도고온천 상가안내도를 제작했다.

이번 제6기 도시재생대학은 상기와 같이 팀별로 교육과 시범사업을 병행해 주민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도시재생의 기반을 다지는 초석이 됐다. 아산=리량주기자

배재대 주시경대학, 학업성과물 축제



배재대 주시경교양대학 학장 심혜평 교수가 한층 강화된 '나섬 페스티벌'을 27~30일 배재대 21세기관에서 선보인다. 국내 최초 시각장애인 변호사와 전자상거래학과 졸업생 특강을 비롯해 다채로운 교과·비교과영역 발표·토론회가 4일간 축제형식으로 치러진다. 4번째 개최되는 '나섬페스티벌'은 1년간 진행된 교과·비교과 활동을 전시·발표하는 축제다. 학생들이 익힌 배움의 산물을 나누고 관람·전시해 봄기는 정신을 배양하기 위해 기획했다.

요일별로 ▲27일은 '주시경교양대학을 파헤쳐라'를 주제로 배재대와 주시경교양대학 낱말풀이 퀴즈 ▲28일은 감성을 담은 캘리그래피 및 전자상거래학과 졸업생인 오세린 작가의 '23살, 여행에서 길을 찾다' 특강 ▲29일은 고미운 이에게 마음을 전하는 '칭찬 FOR U'와 국내 최초 시각장애인인 김재왕 변호사의 '장애는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적응하는 것' 특강 ▲30일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사진판 등이 선보인다. 이정복기자

이동통신 3사 최근 10년 통신장애 47시간 피해

누적시간 총 47시간에 이르고... 총 734만명 피해 입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갑)은 이동통신 3사의 최근 10년동안 통신장애 누적시간이 총 47시간에 이르고, 총 734만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경제적 결합 장애 뿐만 아니라 트래픽과부하장애 등의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파악하고 있지 않음을 문제점으로 짚었다.

유승희 국회의원 국정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7년 9월 현재까지 통신대란을 일으킨 통신장애 횟수는 총 19회에 이르고, 지속시간도 47시간 31분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 장애건수를 살펴보면 KT 8회, SKT 6회, LGU+ 5회로 나타났다. 장애의 주요 원인은 소프트웨어 오류나 하드웨어 불량, 과부하 등 통신사 부주의로 인한 인제 사고였음이 드러났다. 통신장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LGU+ 80만명, KT 47만, SK텔레콤 607만명 등 총 734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피해에 대하여, 국민들에 대한 보상액은 SK텔레콤이 438억 6,000만 원(인당 7,200원), LGU+는 1억 1천만 원(인당 138원), KT는 현재까지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기계적인 결합으로 발

생하는 통신장애 뿐만 아니라 트래픽 과부하로 인한 통신 지연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작년에 일어난 사상최초의 강진, 최근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통신장애, 이번 추석 연휴 간 트래픽폭증 등 크고 작은 통신장애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안들의 경우 아직 피해자 수와 지속시간 등의 파악이 미흡하다는 측면이 더 큰 문제다.

통신장애는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금융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이용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부기관은 이러한 현황과 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통신사에게만 맡기고 있어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소비자에게만 떠넘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승희 의원은 "통신사의 기계적 결합장애 뿐만 아니라 트래픽 과부하 장애 등 현황을 모두 파악하도록 하고 국민들이 정상적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손해보상과 요금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통신지연에 대한 장애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도 현장점검과 함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김정환기자

"신림청, 규제 완화로"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

신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사유림을 매수할 때 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감정평가업무를 위한 업무의 부담을 낮추고 27일 밝혔다.

신림청에서는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경영기반이 취약한 영세산주의 임야를 사들여 집약경영하는 사유림매수 사업을 추진 중이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매수 가격결정할 때 감정평가법인 2개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였으나 개정 시행령에서는 법인 아닌 개인 감정평가업자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을 낮추었다. 진입규제의 완화로 감정평가업자 630여 명이 시행령 개정 이후 진행된 317건의 사유림 매수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박봉관기자

K-water, 2017 워터 데탕트(Water Detente) 대토론회

정부, 학계 및 관련 전문가 패널의 심층토론 진행 예정

K-water 시장 이학수는 11월 28일 오후 3시 삼성호텔(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에서 2017 워터 데탕트(Water Detente)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K-water는 물을 통해 지속가능한 남북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2015년 '통일 물 연구회'를 발족해 (사)북한문제연구회와 함께 매년 '워터 데탕트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 워터 데탕트(Water Detente) : 삶의 필수재인 '물'과 국제관계에서 '긴장 완화' 의미인 데탕트의 합성어로, 물을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음)

K-water는 지난 15년에는 남북 물길연결의 중요성을, 16년에는 남북 공유하천 임진강의 상생 협력방안 등을 논의의 한 바 있으며, 올해 3회를 맞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간 논의되었던 남북 공유하천 협력방안을 포함해 경색된 남북관계와 국민정서, 북한의 수용성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K-water 이학수 사장, 남궁은 통일물 연구회 위원장, 김승현 북한 물 문제 연구회 회장, 허준행 한국수자원

학회 회장 등 물과 통일 분야 전문가가 대거 참석한다.

특히,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대표를 비롯한 각계각층 전문가 4명의 물 분야 협력방안 주제발표에 이어 정부, 학계 및 관련 전문가 패널의 심층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K-water 이학수 사장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논의될 남북 협력방안은 우리 삶과 뗄 수 없는 물을 통해 남과 북이 협력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부 관련부처,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봉관기자



조폐공사 '삼살개' 주테마 · 99.99% 순도와 품질 보증

'무술년 개의 해 미니 골드바' 3종 출시



한국조폐공사는 2018년 무술년(戊戌年) '개의 해'를 맞아 희망찬 새해를 기원하며 27일부터 프랑스 유명 여배우 겸 감독인 벨라 리 로랑과 프랑스 환경운동가인 시릴 디옹이 감독을 맡았고, 10,266명의 사람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영화 제작비를 지원하였다. 또한 프랑스 다큐멘터리 영화로는 드물게 1백만 명 이상의 관객을 모아 흥행했고, 2016년에는 프랑스의 권위 있는 영화상인 '세자르'(Cesar)를 수상하기도 했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김민 (재)기후변화센터 커뮤니케이션팀 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강동혁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지원센터 책임연구원, 이은진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기후변화 콘텐츠Lab 소장 겸 플랫폼C 대표, 서울그린캠퍼스 홍보대사 조재찬 군과 서대전고등학교 국토동아리(LOVE)의 양유열 학생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정복기자

려져 있다. '개의 해 미니 골드바' 디자인은 우리 고유 품종인 삼살개를 주테마로 삼아 풍성한 털과 친근한 표정을 살려 표현했다. 제품 케이스는 무술년을 상징하는 황금색을 주조로 디자인했다.

3.75g, 10g, 37.5g 3종으로 판매 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은 3.75g 골드바가 23만원, 10g 61만1천원, 37.5g 228만8천원이다.

제품은 조폐공사 온라인 쇼핑몰(www.koreamint.com) 및 전화 주문(02-710-5228)을 통해 판매한다.

조폐공사 영업개발단 최성호 팀장은 "조폐공사의 미니 골드바 제품은 ISO(국제표준화기구) 9001 품질경영시스템 하에 제조된 순금 순도 99.99%를 보증한다"며 "주화 제조기술이 집약된 빼어난 외관과 예술적 소장가치로 고객 만족도를 높인 게 특징"이라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서대전고등학교와 함께한 기후변화 토크콘서트 개최

영화 <내일:Demain> 상영과 '기특한' 만남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한덕수가 서대전고등학교 교장 윤여구 및 플랫폼C와 함께 서울특별시 의 후원으로 기후변화 토크콘서트 '영화 <내일:Demain> 상영과 '기특한' 만남'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특별한 만남'의 줄임말을 24일 서대전고등학교 강당에서 개최했다.

'기특한' 만남'은 미래세대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후변화 대응 활동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기후변화센터가 2012년부터 개최해온 행사로, 사회 각계의 리더들이 패널로 참석하여 대학생들과 기후변화에 대해 묻고 답하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개최된 열세 번째 「'기특한' 만남」은 프랑스 다큐멘터리 영화 <내일:Demain>의 상영과 연계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미래세대의 주역인 고등학생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그린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영화 <내일:Demain>은 2015년 프랑스에서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판보다 해결책에 초점을 맞춘 유쾌하고 희망찬 내용을 담고 있다. 프랑스 유명 여배우 겸 감독인 벨라 리 로랑과 프랑스 환경운동가인 시릴 디옹이 감독을 맡았고, 10,266명의 사람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영화 제작비를 지원하였다. 또한 프랑스 다큐멘터리 영화로는 드물게 1백만 명 이상의 관객을 모아 흥행했고, 2016년에는 프랑스의 권위 있는 영화상인 '세자르'(Cesar)를 수상하기도 했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김민 (재)기후변화센터 커뮤니케이션팀 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강동혁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지원센터 책임연구원, 이은진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기후변화 콘텐츠Lab 소장 겸 플랫폼C 대표, 서울그린캠퍼스 홍보대사 조재찬 군과 서대전고등학교 국토동아리(LOVE)의 양유열 학생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정복기자

심사평가원, 국민 중심 홈페이지로 새 단장

국민 의견 반영... 사용자 접근성 및 편의성 증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 사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국민 중심의 홈페이지(www.hira.or.kr)로 개편해 27일 오픈했다.

심사평가원은 '국민과 소통 강화'를 중점으로 두고 홈페이지 개편을 진행했으며, 홈페이지 디자인 선호도 조사 및 건강정보 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장구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적극 반영했다.

개편은 많이 이용되는 메뉴를 메인 화면 중심에 배치한 국민 공감형 디자인을 기본 컨셉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 중심의 메뉴체계 개선, 메뉴별 기능 고도화 등이다.

특히 '병원·약국 찾기' 메뉴는 지도 검색 기능을 추가하고, 병원·약국 검색 영역을 2km에서 3km로

확장해 국민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구현했으며, '병원평가정보'는 다수 지역 선택 검색 기능을 추가하고 병원평가 비교를 3개에서 5개로 확대했다. 또한 최신 웹표준기술(WHTML5) 및 액티브X 대체기술을 적용해 정부정책을 준수함으로써, 국민이 다양한 브라우저 및 기기(OS)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호환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고 악성코드 감염 경로 차단 등으로 보안성을 향상시켰다.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개편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이 보다 쉽게 건강정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아산시 신창면 경희학성이파트

'해피 다(多) 드림(dream)센터' 개소식



아산시 신창면(면장 김정식) 경희학성이파트(인주자대표 박희진)에서는 지난 24일, 경희 해피 다(多) 드림(Dream)센터 개소식을 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경희 해피 다(多) 드림(Dream)센터(이하 센터)는 2016년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어르신 및 아파르트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사업비 등 예산 8천만원을 배정받았다. 센터는 108동 주민공동시설을 개·보수하여 앞으로 외국어 교육장 및 공부방

으로 활용한다. 개소식에 앞서 다문화 자녀들의 한글수업과 맨사보드게임 등을 진행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김정식 면장은 개소식에서 "경희학성이파트에서는 주민 스스로 행복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만들었다. 아파르트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앞으로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 강조하며, 아파르트 공동체 발전을 위해 노력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소방활동 사진전시 이벤트 펼쳐

아산소방서, 겨울철 범시민 소방안전의식 고취 위해

아산소방서(서장 김득관은 27일, 119이동형체력차량 교육과 함께 겨울철 범시민 소방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소방활동사진 전시 이벤트를 운영했다.

이번 이벤트는 겨울철 어린이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안전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소방 활동에 대해 홍보하고, 소화기사용법, 지진체험교육, 화재 시 대피요령 등 화재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생생한 소방 활동 장면이 담긴 사진전시 ▲ 지진대피체험 ▲ 화재 시 대피요령 ▲ 119신고요령 교육 등이 다. 또한 교육용 소화기를 이용한 소화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 위주의 교육을 실시 해 어린이 및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아산=리량주기자



대전동구새마을부녀회, 독거노인 김장나눔행사
대전동구새마을부녀회(회장 신은옥)는 지난 25일 동구지회에서 회원20명이 참여해 머느리봉사대와 결연한 독거노인가정을 대상으로 밀반찬담가주기 행사를 실시했다.



대전충남병무청, 행복한 일터 조성과 역량강화 위한 멘토링 데이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은 청 내 연구모임인 '국민행복B, 아이디어뱅크'주관으로 신규직원들의 역량강화 및 선·후배간 소통을 위한멘토링 데이 행사를 실시했다.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 나서

서산소방서, 음성통화 외 문자, 영상통화 등 신고 가능

서산소방서(서장 류석운)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음성통화 외에도 문자, 영상통화, 앱(app)등으로 신고가 가능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에 나섰다.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실원 간의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 앱에 의한 신고가 가능해 음성통화가 곤란한 상황이나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긴급상황 전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앱 신고는 '119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이용할 수 있는데, 앱을 사용하면 GPS 위치정보로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해 산이나 바다 등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 유용하다. 문자신고의 경우 119번호로 문자를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 첨부도 가능하다.

서산=김정한기자

'2017 참군인 대상(大賞)' 시상식

육군은 11월 27일 육군본부 인종근 장군실에서 구홍모 육군참모차장 주관으로 '2017 참군인 대상(大賞)' 시상식을 가졌다.

'참군인 대상'은 2002년 육군이 제정한 충성·용기·책임·존중·창의 등 5대 가치관을 군 복무기간 중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한 장병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연 1회 부문별 1명씩 총 5명을 선발해 수여해 온 상이다. 이 상은 공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부문은 수상자를 선발하지 않을 정도로 육군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이다. 수상자는 육군본부 각 부·실과 군사령부, 육군 직할부대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종 5명을 선정한다.

올해 수상자는 37사단 박민석 소령(34세·3사4기), 5사단 조성호 중령(42세·3사33기), 특전사 고인화 원사(40세·특전부사관 110기), 1군수지원사령부 천진복 상사(36세·민간 02-1기), 2군수지원사령부 한용국 주부관(7급·43세) 등 5명이 선정되었다.

김태선기자

정부기관 등 소속 관용차량 40년간 보험료 특혜

“최근 5년간 관용자동차 보험가입 현황” 분석 결과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구)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관용자동차 보험가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으로 정부 기관 등 소속된 관용차량의 보험 가입 건수는 10만 6천건으로 나타났고 정부가 이용한다는 이유로 40년간 일반차량 보험료의 반값만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값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에 비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은 일반차량과 똑같이 가져가고 있어 관용차량이 보험료를 특혜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 대비 보험사가 얼마나 많은 비용을 제출했는지를 나타내는 손해율은 보통 78% 내외를 유지하지만 관용차량의 손해율은 최근 5년간 적정 수준 보다 높게 나타났다. 2013년 손해율은 101%, 2014년 96%, 2015년 98.6%, 2016년 97.1%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제는 손해율이 적정 수준을 넘어 높아질수록 보험사들의 손실이 커지며, 이는 소비자의 손실 부담으로 전가되어 관용차의 높은 손해율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사의 손실을 일반 차량의 보험료 인상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민병두 의원은 “관용차 보험의 반값 특혜는 일반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관용차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일반 차량에 비해 보험료를 할인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7년 8월말 현재 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14조 112억원(계좌수 271만개)으로 외형상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 절반 이상이 강동제좌이거나 실질적인 운용지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의미 없는 계좌로 파악되었다.

불필요한 계좌가 수없이 개설된

이유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판매를 직원들의 성과에 연동하여 무리한 판매를 강요하기 때문에 강동제좌가 양산되었으며, 이러한 실적 위주의 밀어내기식 판매로 말미암아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민병두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금융이 실질적인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금처럼 실적 놀리기 급급해서는 공적인 금융기관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부여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

부여소방서(서장 박찬행)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와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소방서는 매달 관내 주요도로와 전동시장 등 많은 인파가 모인 곳을 중점 대상으로 의용소방대, 군청, 경찰서, 시장상인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소방차 길 터주기 현판과 캠페인 등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소방차 진입관련 구간과 전동시장 일대에서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과 소방통로 확보현판을 실시하고 소방차 출동에 방해가 되는 적치물 등 장애 요인을 현장에서 시정하고 관계인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가정용 달걀 위생처리않고 팔면 영업정지 최대 1개월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달걀을 일반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에서 위생적인 선별·포장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식용란선별포장업 관련 세부 규정 마련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예외 규정 확대 ▲축산물판매업 영업장에서 포장된 축산물 판매 시 개별 축산물 판매업 영업신고 예외 인정 등이

다.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의 세부 범위, 영업자 위생관리기준, 시설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신설하였다.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자기품질검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고, 영업자 준수사항에서는 최종 소비가 목적인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려는 달걀의 경우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하여 유통·판매하도록 규정하였다.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영업자

도 포장된 포장육을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판매할 때에는 식품판매업 영업 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영업 신고예외 규정을 두었다.

축산물판매업 영업장에서 포장된 닭·오리 식육, 포장육, 포장된 달걀을 그대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에 대한 개별 영업신고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달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영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선기자



태안소방서, 동절기 대비 장비점검

겨울철 사고피해 최소화 위한 소방장비 점검·조작훈련



태안소방서(서장 구동철)는 27일 겨울철 사고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방장비 및 차량 등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했다고 전했다.

소방장비 확인점검은 소방차량과 각종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장비 등의 관리 상태 뿐만 아니라, 예방점검의 이행실태, 장비 조차원의 교육 훈련 상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했다.

태안소방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재난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반

구조장비, 차량, 상향대차방범 등 장비조작훈련을 통한 겨울철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구동철 서장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소방장비 조작능력 향상과 철저한 조차원의 교육 훈련 상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했다. 태안소방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재난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반

태안=김정환기자

당진소방서, 겨울철 소방시설 동파주의 당부

동파주의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 당부

당진소방서(서장 방상찬)는 겨울철 옥내소화전 설비 등 소방시설에 대한 동파주의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겨울철 화재발생 시 소방시설 작동불량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겨울철 동파로 인한 고

장비 생기기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유지관리방법은 ▲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배관 노출로 동파 우려가 있는 설비는 배관 보온조치 ▲ 수시로 작동점검을 통해 사용상 문제가 없도록 관리 ▲ 옥외 비치

된 소화기는 눈이나 빗물로 인해 동파 및 부식되지 않도록 안전조치 등이다.

당진소방서 관계자는 “겨울철 소방시설의 철저한 안전관리로 보다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당진=최근수기자

계룡건설, 지진피해 입은 포항시 복구 성금 1억 전달



계룡건설 한승구 회장은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시를 돕기 위해 27일 포항시청을 찾아 이강덕 포항시장에게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1억원을 전달했다.

계룡건설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기업이며,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기탁과 사회복지시설 위문 뿐만 아니라 생

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를 위한 나라사랑 보급자리 사업, 외병 중인 예비역 위문사업 등 우리주변 소외 계층에 대한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1992년에 설립한 계룡장학재단은 중부권 유수의 중견장학재단으로 장학사업 및 역사, 문화사업을 통해 기업 이윤의 사회환원과 공익기에 합동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한승구 회장은 “이번 성금이 지진피해를 입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담아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조속히 피해가 복구되어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되돌아가길 간절히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박봉관기자

아산시, 아동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북한이탈주민 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40여명 대상



아산시는 지난 24일, 인주지역아동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 아동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40

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아 위급상황 발생 시 의사전달의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다문화 가정의 소방안전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아 위급상황 발생 시 의사전달의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다문화 가정의 소방안전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마련됐다.

아산=리량주기자

예산소방서, 다문화가정 소방안전교육

다문화인구 센터 직원 30여명 대상 실시



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지난 27일 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인구 센터 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아 위급상황 발생 시 의사전달의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다문화 가정의 소방안전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발생 시 신고 및 대피·행동요령 ▲소화기 사용 소방시설 사용 및 점검방법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등 이론과 체험을 병행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전병철 현장대응단장은 “매년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이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지역 소방안전의 시각지대 발생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양성업기자

“기업 81%, 유연근무제 실시 안 해”

<사람인>조사결과... 이유로 ‘부서, 협력사 등과의 협업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워라벨(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이 2018년 트렌드 키워드로 꼽힐 만큼 사회 이슈다. 일과 개인의 생활 양립을 돕는 제도인 유연근무제를 기업에서는 얼마나 시행하고 있을까?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기업 369개사를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실시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81%가 ‘실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실시하지 않는 이유로는 ‘부서, 협력사 등과의 협업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35.5%), ‘복수응답’과 ‘업무가 많아 여력이 없어서’(35.5%)를 1위로 꼽았다. 이어서 ‘경영진이 반대해서’(21.4%), ‘제도

를 악용할 것 같아서’(14%), ‘성과 하락이 우려해서’(8%), ‘제도 도입을 위한 투자 비용이 높아서’(4%), ‘이전에 실시했지만 효과가 없어서’(1%)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향후 유연근무제를 도입 의향을 묻는 질문에도 81.9%가 ‘도입 의향이 없다’고 답변해, 앞으로도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을까?

현재 유연근무제를 실시중인 기업(70개사)에서 활용하는 방식으로는 시차출

퇴근제(71.4%, 복수응답)를 도입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계속해서 ‘시간제근무’(22.9%), ‘집중근무제’(14.3%), ‘재택근무제’(8.6%), ‘원격근무제’(4.3%)의 순이었다.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이유로는 ‘직원들의 워라벨 유지를 위해서’(62.9%,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다음은 ‘업무성과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48.6%), ‘장기근속률을 높이기 위해’(15.7%), ‘경영진의 지시에 의해서’(10%), ‘비용 절감을 위해서’(7.1%),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7.1%), ‘정부 지원이 있어서’(4.3%), ‘회사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2.9%) 등을

들었다.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직원의 평균 비율은 전체 직원의 51%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 직원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답변이 27.1%로 가장 많았고, ‘10% 미만’(20%), ‘20~30% 미만’(12.9%), ‘40~50% 미만’(10%), ‘10~20% 미만’(10%), ‘70~80% 미만’(5.7%)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직원들의 만족도는 높다는 의견이 75.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보통이라는 답변은 20%, 낮다는 답변은 4.3%에 불과했다.

이정복기자



서산교육지원청, 안전한 등굣길 캠페인

관내에서 운행되는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대상 운영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황연종)이 지난 27일 관내에서 운행되는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을 대상으로 황연종 교육장을 비롯한 탐상급 직원 18명이 안전한 등굣길” 캠페인을 운영했다.

이번 통학안전 수호천사 운영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찾아가는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했다.

서산=김정한기자

조치원대동초, 세종시 최초

‘국제안전학교’ 인증 쾌거

조치원대동초등학교(교장 임형섭, 이하 조치원대동초)는 지난 11월 16일(목)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SCCC)로부터 세종시 최초로 ‘국제안전학교’ 인증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국제안전학교는 학교구성원들이 사고와 손상을 줄이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학교에 대해 WHO(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SCCC)가 인증해 주고 있다.

조치원대동초는 지난 2015년 세종시교육청 안전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됐으며, 지난해와 올해 2년간 안전 연구학교로 선정되어 학생과 시설 안전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지금까지 3년간 학생·학부모·교직원의 협력으로 ▲안전체험의 날 운영(연 2회 이상) ▲각종 재난 대피훈련 실시(수시) ▲안전체험활동 실시 ▲학생·학부모·교사로 구성된 안전모니터링단 활동 ▲안전 캠페인 실시 ▲학생주도의 재난대피훈련과 안전지킴이 활동 ▲교내 안전체험교실 구축 ▲월별 손상분석 협의 등 수많은 안전교육과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여 얻은 값진 결과이다.

세종=이정복기자

충남도교육청, 웹드라마

‘오늘도 Go 高’ 방송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7일 오후 5시 웹드라마 ‘오늘도 Go 高’를 교육청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다.

‘오늘도 Go 高’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평범한 고등학생 나평범(임성고 최규영, 1학년)과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뭐 하나 못하는 게 없는 엄친딸 엄진아(임성고 하보미, 2학년) 등 다양한 장래희망을 가진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그리는 학교 드라마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9월 웹드라마 제작 계획을 수립한 이후, 타이틀 공모, 출연학생 오디션 등을 거쳐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천안업성고에서 촬영을 마쳤다.

지난 21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제작과정 및 메이킹 영상을 공개했으며, 영상에 ‘완전 기대됩니다’, ‘분방사수’, ‘꿀잼, 대박’ 등의 댓글이 달리는 등 많은 화제가 되고 있다.

유희성 공보담당관은 “교육수요자와 보다 가깝게 소통하고 교육정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수요자인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하여 웹드라마를 제작하게 됐다”고 제작의도를 밝힌 바 있다.

대전교육청, 노후급식기구 교체비 16억 4천만원 지원

초·중·고 63개교에 오븐기, 식기세척기, 식탁·의자 등 6종 지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대전 지역 초·중·고등학교 63개교(초 38개, 중 10개, 고 15개)를 대상으로 노후급식기구 교체비 16억 4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3월(23억원), 7월(3

억 5천만원), 8월(17억 8천만원)에 이어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4번째 지원으로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을 통해 학교급식 만족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기존 지원하던 오븐기, 식기세척기, 식탁 및 의자, 국솥 등 4종에서 튀김솥 및 취반기 등 2종을 추가로 확대 지원

하여, 학교 재정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안전한 조리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한 행·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은 물론, 급식질의 개선으로 학생·학부모가 만족한 대전 학교급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세종시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2017 임금협약

10일 개별 임금교섭 잠정합의... 최종적 24일 개별 임금교섭 체결



일시 : 2017. 11. 24.(금)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24일 교육청 3층 상황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과 ‘2017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체결식에는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학비노조 박금자 위

원장과 노동조합 간부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 8월 18일부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간 집단교섭을 통해 두 달 반 만인 지난 달 31일(화)에 집단 임금교섭 체결식을 가진 이후, 개별 시·시도교육청 별로

지역단위 노조와 개별교섭을 벌인 결과,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0일(금) 개별 임금교섭 잠정합의에 이르렀고, 최종적으로 24일(금) 개별 임금교섭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임금교섭의 구체적인 내용은 ▲근속수당 2년차부터 3만원씩 지급 ▲맞춤형복지비 연 10만원 인상(기본연 40만원→50만원)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 출산축하금 300만원 지급(신설) ▲가족수당 공무원 가족수당 규정 준용 ▲명절휴가비 연 30만원(연 70만원→100만원) 인상 등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임금협약 체결로 세종시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복지가 향상되어 일할 맛 나는 직장문화로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교육재정 속에서 양 측이 서로 양보하고 협의한 이번 임금협약을 위해 노력한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정복기자

천안불당고, 전국 내 고향물 지킴이 육성프로그램 경진대회 우수상

전국 13개 기관 중 우수상 영광 차지하는 쾌거 거둬



천안불당고등학교(교장 안용환) 환경 동아리 CEO 대표(회장 김가현, 회장 이지호)는 지난 11월 24일(금) 대전시 예람

인재교육센터(사람)에서 실시된 한국농어촌공사 주최 제3회 내고향물지킴이 육성프로그램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전

국 13개 기관(팀) 중에 우수상(2위)의 영광을 차지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번 대회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내고향물지킴이 육성프로그램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활동성과 발표를 통하여 수질보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선정된 천안불당고는 CEO(Clean Eco Original : 깨끗한 환경 그 모습 그대로) 환경동아리를 중심으로 천안시내에 위치한 업성저수지의 수질환경을 모니터링하는 등 수질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이런 활동들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설득력 있게 발표하여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천안=채기병기자

공주도서관 “쌀쌀한 날씨에 책 보러 도서관으로 오세요”

다양하고 유용한 자료 제공 위해... 신간도서 2,444권 구입

공주도서관관장 박찬희는 지난 20일 이용자들에게 다양하고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신간도서 2,444권을 구입하여 종합자료실 신간도서 코너에 정리를 마치고 이용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 비치된 신간도서는 기관 및 이용자 추천도서, 언론 추천도서 등으로 엄선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구입했다. 일반도서 1,019권, 어린이 청소년자료 1,136권, 영어도서 176권, 큰글씨도서 113권이 입수되어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의 많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야외활동보다 좋라며 도서관을 찾는 한 이용자는 “새책이 들어와서 너무 좋다. 도서관에 오면

늘 독서의욕이 생긴다. 겨우내 도서관에서 열심히 책을 읽겠다.”며 꾸준히 도서관을 이용할 것을 약속했다.

공주도서관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및 이용자 특성에 맞는 균형 있는 장소 구성으로 다양하고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도서관을 찾는 지역주민들의 즐거움이 더해질 전망이다.

공주=정삼범기자



이산청소년쉼터, 찾아가는 연합거리상담 실시

지난 24일, 아산시 관내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아산시, 아산경찰서, 아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합하여 청소년 3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거리상담(아웃리치)’을 실시했다. 이날 거리상담은 수능이후 청소년들의 비행 및 탈선을 예방하고자 지역의 청소년 밀집지역으로 직접 찾아가 청소년상담, 거리배회 청소년 귀가지도, 청소년보호활동, 리플렛 및 홍보물품배부 등을 했다.



논산연신초, 방과후 종합발표회 개최

연신초등학교(교장 김일규)에서는 11월 24일 오후 13시30분부터 학부모님들과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예술꽃씨앗학교, 방과후학교(돌봄교실)종합발표회를 개최하였다.



홍성교육지원청, 제13기 영재교육원 수료식 가져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이 25일 2017학년도 사시(비정) 산출물 발표 및 로트·드론 학부모체험 프로그램, 제13기 수료식을 가졌다. 제13기 홍성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수료식은 수료생 76명과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년 동안의 영재교육원 활동들이 되돌아보고 마무리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수료증 수여, 소감발표 등의 시간을 가졌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2017 놀이지원사업』 1천만원 후원금 전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분부는 27일 대전전동초, 대전금곡초, 대전비례초, 구즉초, 산서초와 함께 『2017 놀이지원사업』 1천만원 후원금을 전달했다.

동정

충청남도 지방정부 회의



김홍장 대전시장 = 28일 오전 9시 30분 당진시청 접견실에서 열리는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이웃 돕기 물품 기탁식에 참석, 오후 4시 태안군청에서 열리는 충청남도 지방정부 회의에 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운 대전시장 = 28일 오전 10시 당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50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

충남 지방정부 회의



한상기 태안군수 = 28일 오후 4시 군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충남 지방정부 회의'에 참석

지방정부회의



이석화 청양군수 = 28일 오후 4시 태안군청에서 열리는 제3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 참석.



도고라이온스클럽 '사랑의연탄' 배달

도고라이온스클럽(회장 정환영)이 지난 26일,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사랑의 연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는 도고라이온스클럽 회원과 회원 자녀들이 함께 참여해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신인리 최모 어르신, 황산리 전모 어르신, 시전리 정모 어르신에 총 10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연탄을 지원 받은 어르신들은 "발췌부터 날씨가 추워 올해 겨울을 어떻게 나아할지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줘 추위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다.

정환영 회장은 "주역 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는데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쁘고, 도고라이온스클럽 회원과 회원 자녀들이 함께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도고라이온스클럽은 2017년 3월 도고면 행복기움추진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매월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7월에는 쌀 64포를 후원하는 등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산=리량주기자

태안경찰서 61년만에 업무 개시

복군 이후 28년 만... 군민 염원 담아 '안전한 태안' 건설에 큰 힘

지난 1956년, 태안군이 서산군으로 편입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태안경찰서가 61년 만에 6만 4천여 군민의 염원을 담아 오늘(28일) 문을 연다.

군에 따르면, 태안경찰서 초대서장 김영일은 5과 15팀 1지구대 5과 출소의 조직을 갖추고 총 168명의 직원이 '안전하고 행복한 태안! 이제부터 태안경찰이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오늘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태안군은 지난 1989년 복군했으나 그동안 경찰서가 없어 28년 간 서산경찰서의 관할지역에 편입돼 주민들이 각종 민원 접수를 위해 서산시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이어져왔다.

특히, 남북으로 긴 태안군의 특성상 태안반도 최남단인 고남면 영목항과 서산경찰서가 도로상 60km나 떨어져 있어 차량 출동 시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각종 범죄 대응에도 한계가 있어왔으며,



민선 6기 인구증가시책 추진 및 한국서부발전(주) 이전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관광객의 증가로 치안 수요가 늘어나면서 태안경찰서 개서를 요구하는 군민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온 바 있다.

태안경찰서의 개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그동안 정부에 경찰서 건립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마침내 2013년, 태안경찰서 신축의 역사적 첫 삽을 뜨게 됐다.

태안을 남면리 432-1번지 일원에 들어선 태안경찰서는 건물면적 6,076㎡에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로 지어졌으며, 지난 21일 태안경찰서 신설 관련 국무회의 의결과 22일 인사발령 등 제반 절차를 거쳐 28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태안군은 태안경찰서 개서를 SNS와 군 소식지, 전광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한상기 군수를 필두로 양 기관 간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경찰서 정문 앞 68m 구간에 대한 지중화 사업을 마무리하고 경찰청 내 심장체제동기를 제공하는 등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군이 관리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의 차량번호인식 시스템을 공유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키로 하는 등 시스템 연계를 나서는 한편, 기존 서산경찰서로 표기된 각종 표지판 및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하는 등 신선했던 태안경찰서가 군민 곁으로 빠르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태안=김정환기자

책과 음악이 있는 북콘서트 열려

당진시립도서관, 윤홍균 작가 북콘서트 오는 30일 진행

당진시립도서관이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북콘서트'를 오는 30일 당진시립중앙도서관 영상강의실에서 진행한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는 북콘서트에는 베스트셀러 '자존감 수업'의 저자이자 정신과 전문의인 윤홍균 작가가 강사로 나선다.

현재 윤홍균 정신건강의학과 의

원 원장을 맡고 있는 윤홍균 작가는 블로그에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남긴 질문에 일일이 답장을 해줘 '윤 답장' 선생님이로 불린다.

작가는 이번 특강을 통해 시민들에게 자존감을 높여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당진시민과

소통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북콘서트에는 재즈 팝 밴드 'SHINE US'가 특별공연을 통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이다.

북콘서트 방청은 선착순 사전 접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당진시립도서관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도서관 홈페이지(http://tmginko.kr/tbdo)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쌀쌀한 겨울 날씨를 따뜻한 위로로 녹일 수 있는 이번 북콘서트가 시민들의 반응을 뜨겁다"며 "접수 마감에 임박한 만큼



신청을 서둘러 달라"라고 당부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청양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편리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자신고·납부 홍보에 나섰다.

위택스(www.wetax.go.kr)는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지방세 조회, 납부,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계좌이

체와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수기납부 시 납세자가 금융기관 방문,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과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등이 불가, 수작업으로 수납 처리를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군은 편리한 위택스 전자신고·납부에 대해 알리고자 지방소

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관련 위택스 이용 안내문을 제작하고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전자신고·납부 비중을 점차적으로 끌어올려 수기납부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납세자를 위한 보다 편리한 세무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AI 유입 차단 총력·청정 태안 지키기 '온힘'

고창서 고병원성 A형 인플루엔자 확산·郡거점 소독소 설치 등 대비 만전



지난 19일 전북 고창군의 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H5N6) 확산

관정을 받은 데 이어 20일 전남 순천만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가운데, 태안군이 거점 소독소를 설치하는 등 AI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지난 23일부터 남면 당암리 B지구 관광안내소에 AI 거점소독소를 설치하고 관내 유입되는 모든 축산관련 차량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긴급 방역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대비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농가에 소독약품 1,000kg을 공급하고 'AI 예찰 담당제'를 통해 매일 축산농가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는 등 만약에 대비한 준비태세 확립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다.

태안=김정환기자

청양군 목면 지방세(소액) 체납액 특별 징수대책 추진

청양군 목면(면장 황우원)은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소액 체납자 징수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소액체납액은 10만원 이하로 설정하고, 주 1회 마을 출장의 날을

점 및 효율적인 징수방안에 대해 분석한 후 면 실정에 맞게 소액징수반을 새롭게 구성하고 체납액 징수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황우원 면장은 "지방세수의 안

정적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납부 홍보 및 독려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집 체납자는 은닉 재산 추적,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보험·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해 소기의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우리/동/네



청삼 지역특화상품 육성 결실 맺다

당진시, 청삼 오일 자가생산시스템 갖추고 상품화 성공

당진시와 청삼 영농조합법인(대표 서흥석)이 청삼 오일(Hemp seed oil)의 자가 생산시스템을 갖추고 국내산 청삼 오일 상품화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청삼 영농조합법인은 청삼의 재배부터 수확, 정선, 탈피, 건조, 착유, 포장 등 청삼 오일의 자가 생산시스템을 갖추고 판매를 위한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청삼이 식품으로서 법적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않아 식용으로의 사용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제2015-4호)를 계기로 대마 씨앗과 대마 씨유의 테트라 하이드로 칸 나비 놀(THC) 기준을 대마 씨앗 5mg/kg 이하, 대마씨유 10mg/kg 이하로 정하면서 청삼을 활용한 식품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를 계기로 시와 청삼 영농조합법인은 청삼 오일을 생산해 한 국식품연구원에 제품 성분분석을 의뢰했는데, 해당 제품에는 혈관 질환 예방과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필수 지방산인 리놀레산이 무려 58.1%나 함유됐다.

청삼 영농조합에서는 개발을 완료한 청삼 오일의 시판에 나섰다. 향후 상표등록 출원 절차를 거쳐 2018년부터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시중에 본격 판매할 계획이다.

또한 시에서는 청삼씨와 청삼 오일의 식용으로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제과점과 손잡고 2018년 출시를 목표로 특화 빵 개발도 진행 중이다.

한편 당진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청삼이 재배되기 시작해 2010년에는 재배 농가가 70여 농가에 5ha 정도로 늘었으나 이후 매년 재배농가가 줄어들면서 2016년에는 33 농가, 3.8ha의 면적에서 재배돼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신창면 라이온스클럽, '도시 숲 사랑' 캠페인 이산시 신창면(면장 김정식)은 지난 25일, 신창면 라이온스클럽(회장 정경철)과 연계하여 산물예방 및 등산로 환경정화 활동과 함께 도시 숲 사랑 캠페인을 실시했다. 신창면 라이온스클럽 회원 등 지역주민 30여명이 참석해 인화성 물질 보관함을 설치하고 등산로 및 학성산 정상 주변 환경 정화활동을 함께 추진했다.



염치읍, 반찬나눔 행사로 '따뜻한 정' 전해 이산시 염치읍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도희)는 지난 24일, 주민자치센터에서 회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밑반찬 나눔 행사를 가졌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매월 2회에 걸쳐 독거노인과 편부, 편모의 소년, 소녀 가정 세대에 밑반찬을 지원해오고 있다. 반찬나눔 행사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의 회비를 모아 매월 진행해 오고 있다.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거래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우리/동네

부여군 직무역량 강화교육

시설관리공단, 자체강사와 외부강사 초청 실시

부여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양태는 '직원 직무능력 강화 교육'을 위하여 지난 24일 정림사지박물관 영상실에서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강사와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시기적으로 근무기간이 해이해 질 수 있는 시점에 마음을 다잡고 추스르면서 담당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공단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양성평등, 안전, 청렴 등의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사회혁신 기반구축을 위한 "2017년 열린혁신 실천 결의대회"도 함께 실시하여 직원대표가 결의문을 낭독하고 새로운 정부운영 방침인 '국민과 함께 하겠다'라는 공감대형성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구축을 위한 다짐도 함께하였다.

이날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교육은 공단직원(상담팀장)이 자체강사로 활동하였고, 대한산업안전협회 초빙강사가 안전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정탁금지법 관련 홍보 동영상 시청하면서, 임·직원 행동강령교육과 청렴교육도 병행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양태 이사장은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선진 조직문화형성과 교육운영으로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배양시키고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이루고 한편으로는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공단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시설물 관리운영과 선진공단운영 구축에 필요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성폭력·가정폭력 추방 캠페인

논산시, 성범죄 근절 위해 캠페인 펼쳐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2017 성폭력·가정폭력 추방 주간에 맞아 24일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여성단체협의회, 논산YWCA, 공무원 등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개한 이번 캠페인은 성폭력·가정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은 학교 등교시간에 내동사거리를 중심으로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을 알리는 길거리 캠페인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만들기에 시민들이 동참하도록 홍보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모두가 안전한 지역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감성서비스 향상 공무원 친절교육

서천군, 공직자 200여 명이 참석 실시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지난 24일 회의실에서 공직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성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감성서비스의 개념과 중요성을 시작으로 민원 접점에서 다양한 민원인의 필요 욕구를 경청하는 법, 민원담당 공무원의 감정 다스리기 및 감정의 치유를 통해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특히 이날 교육을 진행한 태평양아카데미센터의 정희영 강사는 최근 민원서비스의 방향과 트렌드를 중심으로 사례위주의 교육을 진행했다.

공무원의 정서적인 안정과 치유가 민원인과 더 나아가 조직 문화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일방적인 친절을 강요하던 과거 교육방식에 벗어난 교육 진행으로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이끌어냈다.

박여중 부군수는 "친절은 아무리 사납고 악독한 사람이라 할 지라도 진실로 친절하게 대하면 해치지 않는다고 친절한 배려심"에 대해 당부했다.

주민숙원사업 합동설계반 운영

논산시, 2억4000만원 예산 절감 효과... 주민 편익 증진·지역경제활성화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주민숙원사업 및 소규모시설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합동설계반 조기 운용으로 2억 4천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시에 따르면 2018년도 시행예정인 주민숙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소규모 공공시설등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작년보다 2개월 빠른 11월 8일부터 합동설계반을 조기 구성,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동설계반은 분청 희망마을건설과 및 읍면동 시설직 공무원 19명을 4개반으로 편성, 총272건(사업비 35억3천만원)의 사업을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내년 2월 28일까지 17주간 합동설계반을 운영, 빅데이터 구축 및 설계를 마무리하고 2월 말 해빙기



가 도래하면 즉시 사업을 조기발주해 내년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각 읍·면별 소규모시설 현지 조

사측량과 마을안길 노선지정, 포장 마감제 및 포장년도 등의 현황조사 등 소규모시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실시설계 현장 조사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또, 합동설계반 운영을 통한 자체설계 시행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2억4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 및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하게 됨은 물론 사업 계획부터 설계, 준공까지 전 과정의 철저한 관리와 분청 및 읍·면·동 직원간의 업무 공유를 통한 직무능률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논산시 관계자는 "주민숙원사업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 재정균형집행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해 주민 영농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 조기발주로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논산=김태성기자

천안 청사(성정)공원 밝은 공원으로 변신

LED조명 등 쾌적한 신책로 갖춘 청사공원 리모델링 사업 완료



천안시는 서북구 성정동 1285번지에 위치한 청사(성정)공원의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청사(성정)공원은 2002년에 조성된 근린공원으로 두정동과 성정동의 오피스텔과 상가가 밀집한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도심 속 산림형 공원이다.

그동안 공원 시설의 노후, 공원 조명의 밝기 부족, 수목의 밀식 등으로 시민들의 이용률이 저조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천안=채기명기자

군민과 함께하는 정책동행(同行) 현장즉답 나서

노박래군수, 서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현장 방문

서천(군수 노박래)은 군민과 함께 현장에서 보고 듣고 공감하는 정책 동행(同行) 현장즉답을 지난 23일 장항읍과 중천면에서 실시하고, 27일에는 서천읍 일원에서 진행했다.

23일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현장, 서천시니어클럽 장항공동작업장(서천부각, 드림실버농수산물공동작업장)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작업환경 등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천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으로 해바라기농업사업 단 등 총 5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으며 수익금을 통해 새로운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있다.

이어진 서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현장에는 관계자 및 주민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종천면 당정1리 광역상수도 보급을 위한 주민설명 및 의견수렴과 현장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서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으로 광역상수도를 보급하는데 있어 주민 불편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진행됐으며 군에서는 마을상수도 수질불량 및 수량부족으로 상수

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서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27일에 진행된 서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사업 현장에서는 센터 관계자 및 한국어교육 수강생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센터 운영 현황 및 내용 등을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토론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발전방향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진행되었으며, 특히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램 중 하나인 한국어교육을 수강하는 다문화가족과 함께 진행되어 더욱 뜻

폐형광등·폐건전지 집중 수거

계룡시, 오는 30일까지...수시 방문해 해당물품 수거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욱)는 오는 30일까지 폐형광등·폐건전지 등 재활용품 회수 취약품목 집중 수거에 나선다고 밝혔다.

폐건전지는 수은, 망간, 아연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폐형광

등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관내 공공기관·기업체, 공동주택 단지, 학교 등에 수거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시 방문 또는 수거 요청 시 즉시 방문해 해당 물품을 수거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이외의 지역 주민들의 분리배출편의를 위해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폐건전지·폐형광등 수거함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폐건전지·폐형

깊은 자리가 됐다.

군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다문화가족 집적 사례관리 사업 등 전방위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노박래 군수는 "희망찬 서천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야 한다"며 "군민이 행복한 서천군 만들기를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동행(同行) 현장즉답은 민선 6기 서천군 전략목표 중 하나인 '통하는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운영 중인 정책으로 관내 주요 사업장을 찾아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다.

주택 등에 자체 제작한 폐건전지·폐형광등 수거함을 설치해 시민들의 분리배출을 돕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를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리거나 제대로 분리배출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소중한 환경과 자원을 버리는 일이다"면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자원 재활용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및 철새서식지인 하천변 등을 순회하며 소독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을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가금사육농가와 하천 주변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차단방역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해 소독약품 4종 6톤을 공급했다.

현재 군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4개월간 오리사육을 한시적으로 제한하여 발생위험을 낮추고자 2개소(부여 중정, 내산 읍임)에 대해 사육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동 정
기공식

구본영 천안시장= 28일 오전 11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희망2018 나눔캠페인 순회 모금 행사에 참석하고 오후 1시 30분 충남테크노파크 내에서 개최되는 직산삼은저수지 체육공원 조성공사 기공식에 참석.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

노박래 서천군수= 28일 오전 11시 장항원수농공단지에서 열리는 장항원수농공단지 근로자 생활복지관 준공식에 참석하며 오후 4시 태안군청에서 열리는 제3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 참석.

개소식

이우유 부여군수= 28일 오전 11시 40분 보건소에서 열리는 치매안심센터 우선 개소식에 참석.



마을학교 성과공유회 열려

계룡시, 유류공간 교육시설로 활용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욱)는 지난 24일 보훈회관 1층 호국보훈역사관에서 '2017년 계룡시 신나~용 마을학교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였다.

신나~용 마을학교는 아파트 주민 공동 시설이나 마을회관 같은 유류공간을 교육시설로 활용하여 해당지역 주민 스스로 주민이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마을과 가장 가까운 학습공간이다.

시는 올해 두마면 e-편한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염사면 유동리 마을회관, 금양동 대한노인회지회를 마을학교로 지정하여 초등학생을 위한 한자교실, 주부를 위한 프랑스 자수, 납킨아트, 어르신을 위한 한글교실과 찾아가는 토달공예 등을 운영하였다.

이 날 행사에는 최홍욱 시장을 비롯하여 김용락 시의회 의장, 박성호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각 마을학교 교육에 참여하였던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과공유회를 가졌다.

행사 1부에서 마을학교에 대한 소개와 올해 사업추진 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2부에서는 시낭송, 건강체조, 색소폰 등 학습자 공연과 함께 마을학교별 학습 작품 전시회도 진행됐다.

올해 마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은 "아파트 내에 마을학교가 있어서 가까워서 좋고, 내가 배우고 싶은 강좌가 진행되어 너무 좋았다"며 "내년에도 마을학교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계룡시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본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도민체안사업으로 마을학교를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AI 확산 방지 특별방역대책 '총력'

부여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24시간 비상체계 구축

부여군은 서산, 당진, 청주 등 충청지역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우유 부여군수를 중심으로 13개 읍·면·과·관·소가 참여하는 AI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난 20일부터 운영, 방역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여는 금강이 철새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어 AI 안전대비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방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지난 9월부터 3인 1조로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가금류 사업자의 적극적인 방역대책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해 자체 계획을 세워 방역실태를 면밀

히 점검하고 있으며, 미흡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조치 및 페널티를 강화하고 있다.

또 16명으로 구성된 방역관리 전담공무원제를 가동하여 AI 방역 취약농가를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월 2회 이상 일상점검을 진행해 방역실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현재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한 소독방역을 위해 석성면 사비문 광장에 저점소독시설을 설치했고, 4개의 공동방제단은 가금농가

통정

한국세계유산도시협 정기회의



오시덕 공주시장은 28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제19차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

여성지도자아카데미 교육



김동일 보령시장은 28일 오전 10시 노블리안 웨딩컨벤션홀에서 열리는 여성지도자아카데미 교육, 오전 11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는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보령시연합회 역량강화교육, 오후 4시 태안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제3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 참석.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이완섭 서산시장은 28일 오후 2시 부석초등학교에서 열리는 부석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에 참석, 오후 4시 태안군청에서 열리는 지방정부회의에 참석.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



박동철 금산군수는 28일 오후 4시 태안군에서 열리는 제3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 참석.

충남평생학습실천대회



유영덕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8일 오후 2시 고마센터에서 열리는 2017 충남평생학습실천대회에 참석.

서산시 고북면 제2근린공원 준공

바닥분수 · 숲속놀이터 · 휴게시설 · 지압로 · 황토길 야외스탠드 광장 등 조성

서산시 고북면 지역에 새로운 랜드마크, 제2근린공원 조성이 마무리됐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고북면 가구리 625-28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총 39억 2천 만원을 들여 지난해 5월부터 이 공원의 조성을 위한 공사에 들어갔다.

특히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의 공감 형성에도 힘써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된 점이 눈길을 끈다.

23971㎡의 규모로 조성된 이 공원에는 ▲바닥분수 ▲숲속놀이터 ▲휴게시설 ▲조경시설 ▲지압로 ▲황토길 ▲야외스탠드 ▲광장 등의 다양한 시설이 들어섰다.

이와 관련 시는 26일 고북 제2근린공원 광장에서 사업 마무리를 기념하기 위한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완섭 시장과 우종재 시의회의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기관·사회단체장,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준공비 제막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앞으로 이 공원은 지역 주민의 소통의 장과 휴식 공간으로 활용은 물론 서산의 대표축제인 국화축제와 연계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도 사용된다.

특히 해미읍성, 개심사, 가야산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2017년 보육인 한마음 대회

공주시시장 오시덕은 지난 24일 충남교통연수원 대강당에서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의 화합을 위해 보육교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보육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세상을 바꾸는 키움의 뜰, 공주보육'이라는 슬로건으로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소통하며 화합하는 장을 만들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동안 보육사업 분야에 남다른 사랑과 열정으로 보육발전에 기여하고 열린어린이집 선정에 공로가 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교재교구전시회 참여 우수 어린이집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다.

이어, 관원들과 함께하는 힐링콘서트를 통해 그동안 아이들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고단했던 심신을 위로받고 서로 격려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이 하나 되는 재충전의 시간도 가졌다.

오시덕 시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이번 대회의 슬로건처럼 '세상을 바꾸는 키움의 뜰, 공주보육'은 여러분의 열정과 사랑으로 다져지는 초석이 되고 있다"며,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로 밝게 웃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 속에 공주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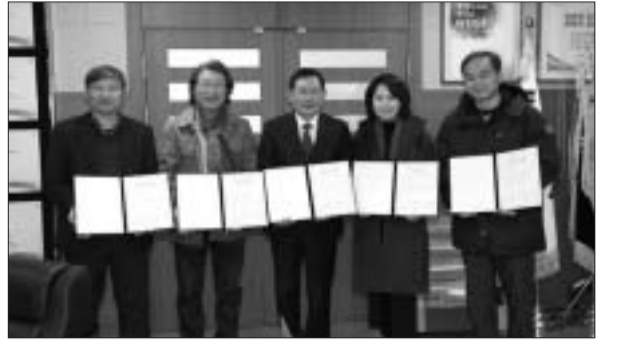
또한, "여러분들이 오로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육에 헌신할 수 있도록 보육환경 및 처우를 개선해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주=정성범 기자

우리/동네

금산군, 간디학교 등 4개 대안교육기관 협약

착근형 우수인재 지원 추진



금산군은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24일 대안교육기관 4개 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도내에서 금산군은 최고의 학생수와 교직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마다 대안학교 학생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간디학교, 별마루 학교, 사사학교, 레드스쿨 등 4개의 대안교육기관이 입지해 있으며, 현재 전교생 및 교직원 등 850여명 중 750여명이 금산에 주소를 두고 있다. 나머지 학생도 전입을 추진 중이다.

군은 대안학교 외지학생들의 전입이 인구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역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입장이다. 지역 안에서 사회적 참여와 활동을 통해 지역 착근형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리 매김한다면 인구증가는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기대해 볼 만하다.

군 관계자는 "인구유입정책이 절실하다고 진단하고 있는 만큼 대안학교가 인구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들 지역학교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산=전정만기자

서산시, 식품허위과대광고 판매 행위 근절

집중 지도 점검·홍보



서산시 보건소가 20일부터 27일까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하는 행위인 속성 텃다방 근절을 위해 집중 지도 점검 및 홍보를 펼쳤다.

이들은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 물품을 판매해 부당이익을 얻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에 따라 시 보건소에서는 고속도로휴게소에서 지도 점검 실시하는 한편, 경로당을 방문해 허위과대광고 정보 수집 및 신고요령을 안내하는 등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조한민 서산시 보건소장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과 홍보를 펼칠 것이다"며 "대개없이 선물을 주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일 등에 주의하고 텃다방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발견 시 전단지 및 녹음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산=김정한기자

실시간 상하수도 요금 조회 · 납부 시스템 구축

보령시, 시민 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일환

보령시는 시민 만족 민원행정 서비스의 일환으로 실시간 상하수도 요금 조회 · 납부 시스템을 구축, 시민들이 수도요금과 검침량 등을 실시간 검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으로 인터넷을 통한 상수도 요금 실시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게 돼 시민들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전화 민원 감소로 수도행정 업무를 절감하며, 수돗물 과다 사용 수위가 누수 안내로 누수가 자율적으로 낭비요인을 제거

거나 누수여부를 보다 빠른 시간 내 파악할 수 있게 돼 시는 물 절약 효과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상수도 긴급 누수보수대행업체 안내 등 수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침현황, 검침내역, 월별 사용량 등의 정보제공으로 정확하고 빠른 수도행정 서비스를 펼쳐나갈 수 있으며, 납부 채널 확대로 채납액 감소 및 징수액 향상, 정확한 정 업무로 징수행정 능률성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성운 수도사업소장은 "그동안에는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일일이 물어와야했던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제는 클릭 한번으로 수도 관련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만족 행정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다양한 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령=김태선기자

“김장용 채소쓰레기 걱정마세요”

공주시, 12월 10일까지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 운영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김장철 채소쓰레기 해소를 위해 오는 12월 10일까지를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으로 정하고 김장 후 배출되는 김장쓰레기 일제 수거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채소류 쓰레기는 동지역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하지만 특별수거기간 중에는 종량제봉투로도

배출이 가능하며, 배출 시에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 가급적 부피를 줄인 후 배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시는 김장쓰레기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일 이상 자연건조 등 부피를 감소토록 유도하고 농경지 및 정원 등에 퇴비로 사용하거나 축산농가의 가축사료 등으로 사용토록 권장하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일요일에는 쓰레기

를 수거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토요일에는 쓰레기 배출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진기연 환경자원과장은 "김장철에는 무단투기 또는 일반비닐봉투에 담아 버려 지연수거에 따른 악취발생 등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며, "김장쓰레기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공주=정성범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테드빌딩 7층

현대식 전통 가옥 MODRN TRADITIONAL HOUSES

BEST PLAN. 현대. 빅 정보 FAX. 042. 624. 1204 HP. 010.7472.4972 pjin71456@hanmail.net

1 원통정적 아름다움

2 난방이 편리

3 아름다움

Modern Traditional Houses

오늘의 하이라이트

꽃피어라 달순아 (KBS2 오전 9시00분)



현도가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했으며 현재 기소 여부를 따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달콤한 원수 (SBS 오전 8시20분)

달님이 죽을 위기에 빠진 동시에 선호에게 심장지가 오고, 달님이 죽음을 다해 세나와 몸싸움을 벌여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자 멈춰버린 선호의 심

케이블 명화

미생: 사라진 여자 (OCN 오후 6시20분)

천사같은 그녀의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거짓보다 더 무서운 진실 그녀를 찾아야만 한다.

이훈 후 육아와 생계를 혼자 책임져야 하는 워킹맘 지선은 현실적으로 딸을 돌봐주는 보모 한매가 있어 늘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지선은 보모 한매와 딸 다름이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을 알게 된다.

지선은 뒤늦게 경찰과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양육권 소송 중 일인 지자극으로 의심한다.

결국 홀로 한매의 흔적을 추적하던 지선은 집 앞을 서성이던 정재 불명의 남자와 주변 사람들의 이상한 증언들로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녀의 실체에 가까워질수록 이름, 나이, 출신 등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는데...

케이블 & 위성 방송

▶YTN (02)398-8000 ▶스카이 라이프 1588-3200 ▶한국케이블 TV방송 협회 060-398-3355

영화·오락

스포츠·레저

뉴스·다큐

음악·애니

- OCN 6:00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8:30 슈퍼히어로 시즌12 11:30 멜로콜릭 12:40 엑스맨:데이 오브 퓨처 패스트 15:20 블랙 18:50 미생: 사라진 여자 21:00 멜로콜릭 22:10 인천상륙작전

- MBC스포츠플러스 10:00 다시보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여자배구 하이라이트 12:00 <당구스페셜> 2017 라블르 3쿠션 당구월드컵8강·준결승 14:00 다시보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여자배구 명승부전 16:00 2014 소치 동계올림픽 18:00 <MBC SPORTS+> 당구 2017 청주 직지 3쿠션 당구월드컵 8강

- YTN 8:00 이슈 오늘 10:00 뉴스타워 12:00 뉴스이슈 14:00 호준석의 뉴스인 16:00 뉴스Q 18:00 뉴스 통 19:30 신들의 시사사랑 21:00 뉴스21 22:00 김선영의 뉴스나이트

- MBC 뮤직 8:10 2017 MMA 아티스트 TOP10 8:40 무한도전 10:10 라디오스타 11:30 나 혼자 산다 13:00 2017 MMA 아티스트 TOP10 13:30 시골경찰 2 15:00 순위의 재구성 16:30 라디오스타 18:00 쇼 챔피언 비하인드

- Mnet 6:20 너의 목소리가 보여 3 7:40 M morning 7:40 역대 MAMA 베스트 퍼포먼스 9:30 Stray Kids 10:30 Wanna One GO: ZERO BASE 12:10 M COUNTDOWN 13:40 MPD Music Tak (SNS/매신지) 14:40 역대 MAMA 베스트 퍼포먼스 15:30 더 마스터 음악의 공존 17:00 Daily Music Tak (SMS) 18:00 2016 Mnet Asian Music Awards 21:00 2016 Mnet Asian Music Awards 23:00 Stray Kids

- SBS 스포츠 9:40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12:30 17-18 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2차 하이라이트 14:30 2016 LG U+배 3쿠션 미스터스 16:00 17-18 ISU 쇼트트랙 월드컵 2차 대한민국 하이라이트 18:00 송헌의 현저 18:50 17-18 도드람 V리그 21:00 17-18 도드람 V리그

- 한국경제TV 7:00 굿모닝 투자의 아침 8:30 출발 중시 830 10:00 증시 라인업 12:00 재테크, 알아야만다 13:00 증시라인 13 15:40 부자 국민 만들기 연금술사 16:30 한국경제 이슈 N 17:00 성공에감 부동산 재테크 18:00 생방송 부동산현황 19:00 부흥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00 정유석의 사구팔구 21:30 대박한국

- 애니맥스 6:00 바이블론즈 5 7:00 아슬아슬한 이상해 8:00 포켓몬스터 섀론 9:00 레인보우 루비 10:00 엉뚱발랄 공손아치 친구들 11:00 유우와 친구들 12:00 러니 시즌 12:00 테닝카드 W 시즌2 13:00 명탐정코난 시즌3 14:00 베이블레이드 퍼스트 part2 15:00 소피루비 part2 16:00 레인보우 루비 17:00 헬로 카봇

- JEI 재능방송 6:00 고교괴담 시즌2 7:00 아이작배달부 동계비 8:00 베이블레이드 퍼스트 9:00 파워캐치 언더 part2 10:00 뽀롱뽀롱 뽀로로 11:00 엉뚱발랄 공손아치 친구들 12:00 러니 시즌 13:00 파워캐치 언더 part2 14:00 유희왕 ARC-V 15:00 플레잉 턴스 part2 16:00 치명처럼 시크릿 유주 11기 17:00 안방 모노모노 18:00 베이블레이드 퍼스트

프로그램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TJB/SBS, CMB, and EBS,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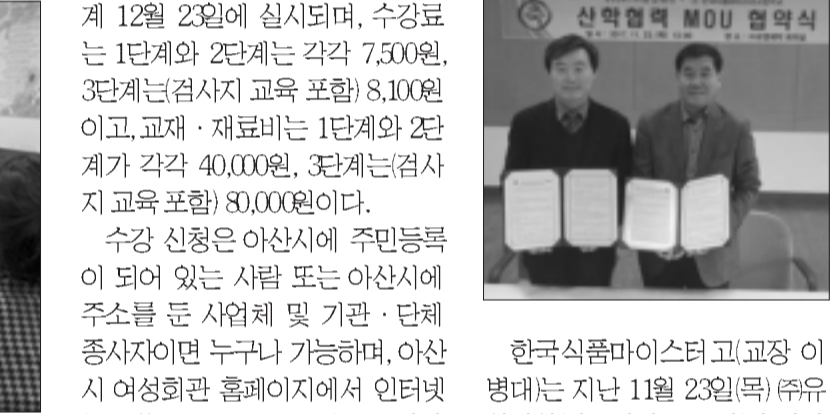
아산시 여성회관 '에니어그램' 특강 수강생 모집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총 60명... 오는 12월 9일부터 운영



아산시 여성회관이 오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에니어그램 특강'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총 60명으로 오는 12월 9일부터 운영한다.

한국식품마이스터고(주유영) 제1회 면담 최익현선생기 전국 게이트볼대회 성료



교육은 1단계 12월 9일, 2단계 12월 16일, 검사지 12월 17일, 3단계 12월 23일에 실시되며, 수강료는 1단계와 2단계는 각각 7,500원, 3단계는 검사지 교육 포함) 8,100원 이고, 교재·재료비는 1단계와 2단계가 각각 40,000원, 3단계는(검사지 교육 포함) 80,000원이다.

제1회 면담 최익현선생기 전국 게이트볼대회 성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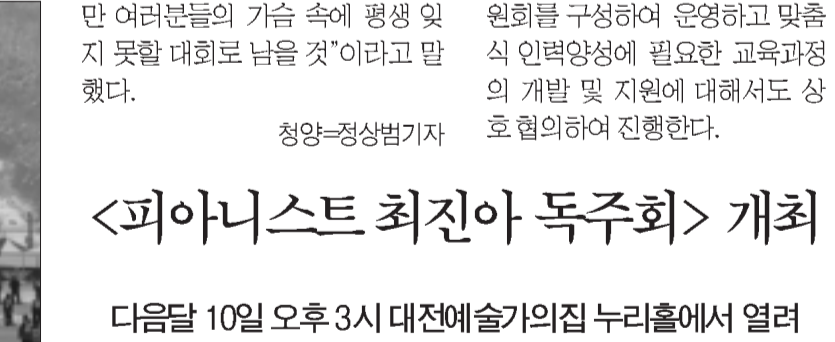
전국의 17개시·도 128개팀 1200여명 참가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청양공설운동장에서 제1회 면담 최익현선생기 전국 게이트볼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피아니스트 최진아 독주회 개최

다음달 10일 오후 3시 대전예술가의집 누리홀에서 열려



피아니스트 최진아가 다음달 10일 오후 3시 대전예술가의집 누리홀에서 <피아니스트 최진아 독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독주회에서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제23번 <열정소나타>를 시작으로 라벨의 <왈츠(La Valse)> 그리고 고리스트의 <피아노 소나타 나단조> 작품번호 178/Piano Sonata in b minor S. 178 을 연주하며 박진감 넘치고 추진력 있는 다양한 음색의 음악을 관객들에게 전달한다.



제1회 지상전 교리발전 세미나 개최 합동군사대학교 육군대학은 27일 역대 육군대학장 및 교관·교수 등을 초청한 가운데 “제1회 지상전 교리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남대 식품영양학과 이미지 교수 학과발전기금 기탁 정년퇴임을 앞둔 교수가 30년을 봉직한 학교에 5천만원의 장학금을 쾌척해 화제다. 한남대에 따르면, 이 대학 식품영양학과 이미지 교수(생명·나노과학대학장)는 27일 5,000만원의 학과발전기금을 이덕훈 총장에게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간송장학회, 지역인재 양성 나눔 실천 간송장학회(이사장 남상만)는 지난 24일 음봉중학교(교장 권오주) 3층 역사관 앞에서 장학금 및 독서활동지원금(총 1,500만원 상당)을 전달하는 교육기부행사를 가졌다.



충남 대학RCY 회원협의회 정기총회 및 동아리활동 경진대회 시상식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회장 유창기)는 지난 25일 '충남 대학RCY 회원협의회 정기총회 및 동아리활동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엔 충남지역 RCY 결단학교 16개 대학교 중 11개 대학교 대표 학생들이 참가했다.



제8회 유림공원 사생대회 시상식 개최 계룡장학재단(이사장 윤종철)은 지난 11월 25일 오전 10시 계룡건설사옥 16층 대강당에서 윤종철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이사, 학생 학부모, 교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유림공원 사생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청양군, 서울시민 대상 김장체험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지난 25일 청양군 농식품생산자지원센터에서 청양로컬푸드협동조합(이장 박영숙)과 함께 서울시민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장체험행사를 개최했다.

새로운 삶의 터전 위한 중심에 괴정동 사례관리팀·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괴정동 주민, 가정폭력에 앞장 서다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괴정동에 전입한 모자가정의 새로운 삶의 터전을 위한 그 중심에 괴정동 사례관리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체계가 있었다.

괴정동에 전입한 황영자(가명, 29세)씨는 결혼 후 지속적으로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여성쉼터 등 임시보호소를 전전하는 등의 힘든 상황 속에서, 첫째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지인의 집 창고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다가 올해 9월말 괴정동에 전입한 모자가정 세대이다.

또한, 간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둘째자녀에게 간이식을 해 준 이후 피곤함을 잡으려고 뇌전증 증세도 보이는 등 건강 또한 약해서



일용직 파트 타임으로 일하고 있다.

어려운 사정을 접수한 괴정동 사례관리팀은 괴정사방방 SNS를 통해 이 가정의 상황을 알리자, 송공장에서는 이를 후원, 자생단

체 회원들은 옷가지, 생활용품 등을 후원 하였으며, 괴정동 주민 한분이 1년 동안 무료로 집을 임대하여 주는 등 주민들의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다.

특히, 파랑새 봉사단의 도움으

로 무료 임대한 집의 도배장판을 하였으며, 괴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세탁기, 냉장고, 가스렌지 등 500,000원 상당의 중고 가전제품을 마련해 주었으며, 이런 주변의 도움의 손길로 1123일(목) 드디어 관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하게 되었다.

괴정동장(윤양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내일처럼 생각하여 도움을 주신 주민여러분께 감사하며, 아직도 세상은 따뜻하다고 생각이 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복지행정으로 한명이라도 더 밝은 삶을 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봉관기자

한국영성대·쥬티브로드, 방 송콘텐츠제작 사업 공동 추진



한국영성대학교(총장 유재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Multiple System Operator)인 쥬티브로드와 산학협력 방송콘텐츠 제작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중이다.

한국영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10월 LINC+ 사업을 통해 쥬티브로드와 산학협력 사업 합의·방송 프로그램 계약서를 체결하고 향후 5년 간 방송콘텐츠를 제작, 티브로드에 송출하기로 했다.

또한 질 높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상호 인프라 자원과 교육 과정 운영 지원 등 다양한 산학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콘텐츠 제작은 지난 11월 1일, 티브로드 세종방송 개국 후 3일부터 한국영성대 교수와 학생, 산업체가 협력하여 제작한 방송콘텐츠 2편(‘파워인터뷰’와 ‘수다토크 이팩트’)이 티브로드 세종방송을 통해 방영 중이다.

정상범기자

“심장 튼튼하게, 혈관 탄탄하게!” 메디체크 건강강좌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는 29일 오후 1시30분 지부 지하1층 보건교육관에서 심혈관 질환자를 위한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노년층 부원장의 진행으로 평소 건강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좌를 열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강좌에서는 “심혈관 질환 예방하기”라는 주제와 함께 궁금증에 관한 질문과 토의 시간도 갖는다.

건협 대전충남지부 배기웅 부부장은 “겨울철 심혈관 질환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정보들을 접하고 싶어 하는 시민들에게 좋은 기회의 강좌가 될 것”이라며 많은 참석을 권유했다. 강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 대표번호(042-532-9890)로 문의하면 된다.

송병배기자

등항봉사단 '사랑의 연탄'

니눔 행사 가져



아산시 신창중학교 7회 총동창회(회장 이상철)와 등항봉사단(단장 조성연)이 25일 신창면 행복기쁨추진단(단장 오세홍)의 추천으로 신창면 저소득가정에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연탄 나눔은 총동문 임원진과 등항봉사단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세 팀으로 나누어 연탄으로 난방을 하고 있는 저소득가구 3가정을 대상으로 200장씩 총 600장의 연탄을 직접 배달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단국대학교, 특허분석 방법론 경진대회 시상식

‘IP-R&D 우수기관’ 특허청장상 수상

단국대학교(총장 장호성)는 특허청이 지난 24일 브레드미당 서울호텔 다빈치홀에서 진행한 ‘지식재산(IP)-연구개발(R&D)우수기관 및 특허분석 방법론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 및 경진대회는 연구개발 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연구개발 혁신에 기여한 공로자를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자 진행됐다. 공모를 통해 모집한 53개 팀을 대상으로 1, 2차 평가를 통해 ‘IP-R&D 우수기관’ 9개 기관, ‘특허분석 방법론 경진대회’에서 11개 팀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IP-R&D 우수기관’은 특허청의

IP-R&D 지원 사업에 참여한 대학, 기업 등의 연구기관 중 IP 창출, 신제품 개발 등의 분야에서 성과가 탁월한 기관들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은 현정근 교수(단국대 대학원 나노바이오의학과)와 신경도관 제조방법 등 말초신경 재생기술의 해외 특허출원을 위한 R&D 특허전략 사업을 진행해왔다.

신경재생 및 치료기술의 선행특허들을 심층 분석해 특허출원 가능 포인트를 87가지 유형으로 정비하고, 국내 특허출원 12건 및 해외(미국) 특허출원 4건을 완료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천안=채기병기자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

‘사랑의 헌혈릴레이’ 행사 실시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본부장 박상준)는 지난 27일 10시부터 당진화력 관내에서 2017년도 4분기 ‘사랑의 헌혈릴레이’ 행사를 실시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증증환자 증가와 각종 사고로 인해 혈액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헌혈 인구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당진화력본부는 이러한 어려

움을 인지하고 안정적 혈액공급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올해로 14년째 전 직원 참여 헌혈 행사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 날 행사에는 당진화력본부와 협력업체 등 40여명의 직원이 참여했고 직원들이 기증한 헌혈증은 혈액부족으로 인한 응급환자 치료에 쓰일 예정이다.

당진=최근수기자

우리은행 대전충청남부영업본부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및 국수나눔 봉사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사회장 정상철)는 지난 25일 세종 사랑의 국수나눔터에서 우리은행 대전충청남부영업본부(본부장 윤석구) 직원들이 2018년 적십자 특별회비 300만원을 기부하고, 적십자 봉사단들과 함께 국수를 만들어 관내 취약계층에 직접 전달하는 사랑의 국수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기부금 전달 및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우리은행 직원들은 먼저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를 방문하여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하였고, 세종 사랑의 국수나눔터로 자리를 옮겨 2시간여 동안 직접 면발을 뽑고, 국수 60인분을 관내 취약계층 60여 세대에 전달함으로써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과 온정의 손길을 나눴다.

정상범기자



2017년 자연환경대상 공모전·설계부문

한국중부발전, 환경부장관상 수상

한국중부발전(사장 직무대행 장성익)은 11월 24일, 환경부가 후원하고 (사)한국생태복원협회가 주최한 2017년 자연환경대상 공모전에서 ‘남부회처리장 활용방안’으로 설계부문 환경부장관상(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올해로 17회를 맞이한 자연환경대상 공모전은 생태적, 친환경적으로 우수하게 보전·복원한 사례를 발굴하여 녹색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전국적 확산 계기 마련을 위해 개최하는 행사로서 생태복원분야 최고의 상으로 꼽힌다.

올해 수상작인 ‘남부회처리장 활용방안’은 사용종료된 보령화력 남부회처리장 부지를 습지, 잔디광장, 숲소울길 등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국내 최초로 회처리장의 친환경적 복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을 개선하며, 발전소 최조로 충청남도과 공동으로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추진하여 30여년간 약 1,064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산림탄소숲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보령=이정복기자



한밭대학교 ROTC 총동문회 발족 한밭대학교(총장 송하영)는 24일 저녁 6시 30분 그늘에너지관 국제회의실에서 ‘한밭대학교 ROTC 총동문회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칼럼

1인 지식창조기업 '라이프코칭'



이창호

이창호스피치리더십연구소 대표

필자는 세상에 평범한 인간은 단 한명도 없다고 생각한다. 오로지 스스로를 평범하다고 여기는 인간만이 존재한다고 여긴다. 그래서 라이프코칭은 이론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비전, 다음설계가 가능하도록 돕는 고급전문가다. 라이프코칭의 스킵을 익혀서 라이프코치가 되고자 하는 이들과, 코칭을 통해 자신의 삶을 더욱 향상하고, 싶은 인간들을 위해서 쉽고, 전문적으로 도움을 준다.

1인 지식창조기업, 라이프코치가 되고자 하는 많은 인간들을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과 코칭은 먼저 인간에 대해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공감에 어떻게 작동하

는지, 마음과 무의식에 대해서 폭넓게 학습을 해야 할 수 있다. 또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자신이 스스로가 재미있다고 여기는 태도(attitude)와 관점, 라이프코칭을 통해 관계가 형성되고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을 배울 것. 또 전략적 관계 중심의 대화를 활용해 코칭을 탁월하게 하는데 있다.

진정한 라이프코치라면 코칭을 통해 상대방을 변화로 이끌어내기 위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해야 하며, 인간의 마음은 무엇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충분히 이해를 해야 한다.

라이프코칭을 진행할 때, 상대방은 코칭의 3단계가 있다. 첫째, 자신과 현실을 자각(Awareness)하는 단계. 둘째,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고 선택하여 자유(Liberty)를 누리려는 단계. 셋째, 소망과 비전을 찾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탁월함을 발휘하며 행복(Happiness)을 즐기는 단계.

특히 코칭의 3단계는 전문적이며 특별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코치

들에게 잘 짜여진 코칭모델을 제시하고, 코칭에 대한 기법에 대해 좋은 면을 제시한다. 코칭은 인간들의 인생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는 강력한 관계다.

그래서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개인의 독특한 철학과 스킬로 코칭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을 배울 것. 또 전략적 관계 중심의 대화를 활용해 코칭을 탁월하게 하는데 있다.

한편, 라이프코칭은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이나 팀을 훈련시키는 일이라는 기존의 생각을 넘어서, 비즈니스, 라이프, 커리어, 스피치, 리더십 등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코칭은 내부의 잠재력을 끌어내어 성과를 내게 하는 절대적 행위(라이프코칭)와 그런 프로세스를 행하는 1인 지식창조기업(라이프 코치)이라는 의미로 천착(穿鑿)되었다. 내 인생에 꼭 필요한 '라이프 코치'는 다변화된 환경과 새로운 문제의 대두,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경쟁력 있는 삶의 변화가 합리적인 대처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기고

평창 동계올림픽과 북한 도발 가능성



임용호

대전·충남재향군인회 회장

평창 동계올림픽(2018.2.9~25)과 패럴림픽(2018.3.9~18)이 다가오고 있다. 과거 북한이 해왔던 도발 행태를 보면 도발 가능성이 없지 않다. 더구나 이 기간이 북한군 동계훈련 기간(12월~내년 4월)과 중첩된다.

우리 정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국제기구와 미국·중국·일본 등 주변국들과 협력해 올림픽을 평화적이고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3일 유엔총회에서 올림픽

개막 전 7일과 패럴림픽 폐막 후 7일 사이 기간인 2월 22일~3월 25일 전 세계 적대행위를 일시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휴전 결의가 채택됐다.

이 결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9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제출했고, 한반도 주요 관련국들이 찬성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런 유엔총회 결의는 1998년 일본 나가노 동계올림픽 이후 거의 모든 동·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채택된 구속력이 없는 의례적 조치이다. 그러나 북한 발 안보위기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조치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2011년 12월 30일 이후 북한은 매년 1월~4월 기간에 핵실험, 탄도미사일 대량 발사, 사이버 공격, 무인정찰기 영공침투 등 도발을 강화해왔다. 그리고 북한은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1988.9.17~10.2) 개최를 방해하기 위해 1987년 11월 29일 바그다드에서 서울로 가던 대

한항공(KAL) 858편 보잉 707기를 미얀마 근해에서 공중 폭파했다. 북한은 2002년 FIFA 한·일월드컵(2002.5.31~6.30) 개최 기간 중인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근해에서 제2연평해전을 도발하고 우리 해군 고속정 357정을 격침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부는 북한 도발 가능성을 상정하고 특단의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설사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경우라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북한 정권은 이성적인 집단이 아니다. 북한은 잠수정으로 2010년 3월 우리 해군 천안함을 폭침(擲沈)하고도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우기고 있다. 사이버 공격, 화학무기(WX) 및 생물무기 등을 이용한 테러는 가해자를 쉽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이 은밀히 노릴 수 있는 분야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간첩과 종북세력(從北勢力)을 이용한 각종 테러도 가능하다.

우선 12월 한중 정상회담(북경)이 열린다면 중국을 이용하여 북한

도발을 차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 동맹국으로 영향력을 가진 나라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2002년 월드컵 당시 미국은 전략자산의 전진 배치는 물론 생화학 탐지장비를 한국으로 공수하여 10여개 경기장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지지를 얻어낸 바 있다.

그리고 정부는 북한 도발 가능 유형을 국민에게 공지하고 국민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바다에 나가 있는 어민은 북한이 위장선박과 잠수정을 은밀히 침투시키는 않는지 감시해야 할 것이다. 산행을 하거나 들에서 일하는 국민들은 종북세력들이 고압 송전선을 파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불순세력이 테러나 사이버 공격에 나서는지 주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정부, 군, 경찰은 물론 5천만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대비에 나설 경우 북한과 테러 세력들은 도발을 시도하지 못할 것이다.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한다.

기고

선박 화재, 침몰시 이렇게 대응 하면 된다



이운성

태안해경 경비구조과장

해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오면, 언제나 애타는 아우성이 있다. '살려 주세요! 빨리 와 주세요!' 선원들이 망망대해에서 다급하게 절규한다.

대부분 화재나 충돌, 겨울철 높은 파도에 의한 침몰 사고인 경우이다.

아무리 예방을 강조해도 해마다 겨울철이 되면 반복되는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선원들 스스로가 설마 하는 생각으로 비상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고민해 보지 않거나 또는 방심하는 경우일 것이다. 하물며 아무런 대책 없이 막연히 바다에 뛰어들면 거친 파도와 겨울바다의 낮은 수온으로 인해 급격한 체온저하로 더욱 견디기 힘들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 모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먼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갑판상의 안전지대로 모여 선체가 화염에 휩싸이기 전에 바다에서 승선원 모두가 의지할 수 있는 긴 밧줄을 준비한다.

그것을 화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선박의 구조물에 묶어 물에 뛰어들었을 때 붙잡고 의지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물속에서 서로 떨어지지 않게 연결할 수 있는 긴 줄을 준비한다.

그러한 준비를 한 후 화재 선박에서 탈출한다. 그리고 화재의 열기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밧줄을 조절하며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화재선박이 전소하여 침몰할 때는 붙잡고 있던 밧줄을 놓아버리면 된다. 일반적으로 화재선박이 전소하여 침몰하는데 대략 4시간 가량 소요된다. 그 시간 동안 침착하게 견뎌준다면 구조세력이 도착하여 모두의 생명을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급박한 침몰이 있기 전 시간이 허락한다면 배안에 있는 대

형 쓰레기 비닐봉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숨이불 하나를 가슴과 무릎까지 닿을 수 있게 직사각형으로 접어 넣는다. 바닷물이 들어가지 않게 다른 비닐 봉투를 다시 반대로 덧 씌운다.

이렇게 앞뒤로 비닐을 씌우고 나면 완전한 부력이 유지된다. 그러면 바다에서 화재의 열기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이불의 보온효과로 차가운 겨울바다에서도 장시간 견딜 수 있다. 끝으로 아간에 구조세력이 발견하기 쉽도록 손전등이나 호각 등도 준비한다.

이처럼 위기의 상황에서 조금만 더 침착한다면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법은 반드시 있다. 우리 모두는 평상시 긴급 상황에 대비한 대처 방법을 더 많이 고민 해볼 때이다.

사설

난방기기 화재 주의해야

겨울 문턱에 들어서며 기온이 푹 떨어지자 난방기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니 걱정이 크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도내에서 난방기기에 의해 발생한 화재는 2014년 538건, 2015년 492건, 지난해 410건 등 3년간 1천440건에 이른다.

기기별로는 나무·목탄난로가 2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장판·담요·방석류 192건, 전기 히터·스토브 191건, 가전용 보일러 18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방당국은 매년 겨울철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가 반복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많은 가정에서 쓰는 전기장판 등 전기 난방용품의 경우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불이 날 수 있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3일 고양시의 한 주택에서는 전원이 꺼져 있던 전기요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플러그가 콘센트에 꽂혀 있던 점

등에 미뤄 온도 조절부의 회로 이상으로 전기가 지속해서 가열돼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14일 오전 2시 48분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5층짜리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나 입자 4명 중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소방당국은 집 안에 있던 전기매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소방당국은 전기장판 전선에서 단락현(줄어든 전선)이 발견된 점에 미뤄 전기장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난방용품의 경우 장시간 외출 시 플러그를 뽑아야 하고, 보관 시에는 접어두지 말아야 한다.

또 열이 쉽게 쌓이는 라텍스(천연고무) 소재 침구류 위에 요를 겹겹이 깔고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야로 주변에는 소화기를 구비해두고, 보일러 사용 전 안전점검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살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2배 높은 수준인데다 정신병 환자 사망률도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정신건강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0월(현지시간) 발간한 2017 한눈에 보는 보건(Health at a Glance)에서 우리나라 자살률은 2013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28.7명으로 리투아니아(29.0명·2015년 기준)에 뒤졌다.

OECD는 회원국에서 통계 수치를 받아 인구수 등에 따라 보정한 수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2015년 기준 확정 통계 발표는 아직이다. 다만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5년 기준 자살률이 인구 10만명당 26.5명으로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지난 2008년부터 12년간 보유한 오명의 타이틀 OECD 자살률 1위는 가까스로 벗겨 될 것이다.

하지만 OECD 35개국 평균 12.1명의 2.4배

수준의 높은 자살률은 유지되고 있다.

3위 러시아(21.0명), 4위 헝가리(19.4명), 5위 슬로베니아(18.1명), 6위 라트비아(18.1명) 등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며, 한 때 우리와 같이 심각한 자살률에 시달리던 일본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17.6명 수준까지 낮아졌다. 이를 고려하면 우리도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은 정신질환자의 높은 사망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살률이 높고 사고나 동반질환 등에 취약할 개연성이 높은 집단이다. 또 흡연, 알코올 남용, 불법 약물, 정신과 치료의 부작용 등 위험 요인이 높은 계층이기도 하다.

정부는 부끄러운 높은 자살률을 낮출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홍성군 우체국, 발달장애인에게 희망 전달

홍성우체국 이계연 국장은 27일 (사)충청남도장애인부모회 홍성지회(회장·염기문) 사무실을 방문하여 발달장애인들의 독립생활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써달라며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후원금 100만원에 기부하였다.

그 동안 홍성우체국 직원들은 수시로 성금을 모아 어려운 가정 연탄배달과 복지시설 자원봉사활동 등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는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어려움을 전해 듣고 이번 성금을 마련했다고 한다.

충남장애인 부모회 홍성지회는 주로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발달장애인의 독립생활지원과 장애인가족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복지증진 및 건강간 가족기능을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이란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말하며 2017년 10월말 기준 홍성 관내 520여명으로 스스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성·김정환기자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외무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전투데이. 발행·편집인 김현정. 회장 김성구. 논설위원 조정호. 전화안내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매달안내 042538-1602. 광고신청안내 042538-1603. 구독료 월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인쇄처 : 동양인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학교폭력예방 선서

- 하나. 우리는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학교폭력을 당하는 친구를 보면 망설이지않고 도와줄 것입니다.
- 하나. 우리는 올바른 정신과 건강한 몸을 통해 학교폭력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

주 관 |

